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人 金鐵中 / 編輯人 ... / 印刷人 ...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新聞價 / 廣告料 / 代表番號 / 振替 / 電話 光化門

所謂亞細亞民族大會

一

日本東京에서 亞細亞民族의 主唱에 依한 所謂亞細亞民族大會가 去年八月에 長崎에서 열리엇든것을 우리는 記憶한다 當時에 朝鮮人參集者는 朝鮮民族의 名目으로 參加하엿고 印度代表라 稱하는 「보라탑」氏는 上陸拒絶을 當하야 參加치 못하엿섯다 그 第二次大會가 今月三日부터 上海南市에서 開催될 豫定이던바 例의 「보라탑」氏의 上海上陸困難으로 延期된다는 說이 잇다 上陸困難이라 함은 租界의 英警이 氏를 逮捕코저 함에 잇고 또 北中國官憲이 氏의 逮捕에 十萬元의 懸賞을 부치엇다는 說까지 잇다 「보라탑」氏는 元來 「아부가니스탄」國의 革命志士로 印度王族의 使命을 가지고 東西에 奔走하야 印度革命을 爲하야 만흔 犧牲을 하야온 사람이다 氏가 英國官憲의 憎惡을 바다 英國의 權限內에 잇는 아니라 英國勢力範圍 植民地에서까지 발부칠 곳이 업는 것은 氏의 一生의 族이 어데 잇는 것을 알 수 잇슬 것이다 그러나 ─! 아니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困難을 冒하면서 ... 亞細亞民族大會에 出席하는 것을 빗겨하지 아니할 수 업다

二

亞細亞民族大會라는 者가 眞正한 亞細亞民族解放運動의 先驅者가 되지 못할 것은 아니라 도리어 亞細亞主義의 ... 帝國主義의 眞味가 濃厚하야 某國帝國主義의 走狗에 不過하다는 것은 眞正한 解放運動者들의 一致한 觀察이다 中國, 印度, 比律賓, 安南等의 有色人種이 聯合하야 白人種을 抗拒하자는 「슬로간」은 그 主唱者가 印度요 安南이요 比律賓이라 할진대 吾人은 ... 日本人의 입에서 나올 때에 이는 日本의 帝國主義가 漁夫之利를 取하려는 手段에 不過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 한거름 나아가 이를 斷定하야 말할 수 잇는 證據는 亞細亞民族의 解放을 絶叫하는 會議에 朝鮮民族의 眞正한 代表者가 參加치 아니한 것에 잇다 그 第一回大會가 長崎에서 열렷슬 때에 朝鮮의 社會團體는 一致하야 그 正體를 暴露식히고 否認하고 排斥하엿다 今回의 大會에 對하야 沈默한 것은 이를 問題삼지 안는 것을 意味함이다 中國의 眞正한 解放運動者가 이에 對하야 猛烈한 排擊이 잇슬 것을 우리는 豫期하는 바다

三

印度와 安南, 比律賓의 解放運動者가 그의 壓迫者가 白人이기 때문에 有色人을 聯合하야 白人을 對抗하자는 이 會議에 對하야 解放運動의 一方便으로 贊同의 意를 보이는 것은 ... 그러나 萬一 亞細亞民族大會에 參加한 安南, 比律賓, 印度의 人士가 眞正한 解放運動者라 할진대 그들은 「사스츠리」와 가튼 者는 이미 反動派의 一人으로 化한 것은 英字新聞에 發表되는 그의 中國時局에 對한 意見을 보면 그의 親日的 傾向을 보아 짐작키 어려운 것이 아니다 ... 亞細亞人이라 黃人種이라 하는 ... 事實의 아페서 ...

無錫進出의 共産軍 滬寧鐵道를 遂破壞
赤巾쓰고 符號로 呼應

共産系民衆二千이 去一日午前 江蘇省宜興縣公署를 突然襲擊占領하엿다 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最近 滬寧鐵道의 沿線 常州를 中心으로 陰謀를 計劃中이던 共産黨은 二千의 群衆과 不服隊及多數共産黨軍을 結束하야 大暴動을 起하야 警備가 薄弱한 宜興市를 砲擊하는 同時에 軍警의 武裝을 解除시키고 縣公署를 占領한 後 更히 二路에 分하야 一隊는 和橋로부터 常州에 向하고 一隊는 宜興으로부터 無錫에 突進하야 無錫 常州間의 鐵道를 破壞하엿고 同時에 國民黨員을 逮捕하엿다 此騷動에 行衛不明된 警察部長은 殺害된 模樣이다 市民은 城門을 閉하고 軍隊의 入城을 防止하고 잇는바 一說에는 義者 何應欽軍에게 武裝解除를 當한 第二十一軍이 새로 何軍에 對하야 잇든바 共産黨의 蜂起와 同時에 此와 秘密히 連絡하야 暴動을 일으킨 것이라 한다 (上海三日發)

別報 = 今回 共産黨의 行動은 아조 計劃的으로 共産民衆은 全部 머리에 赤布를 두르고 符號로 呼應하면서 第一着으로 宜興縣城의 電信, 電話線을 斷切하고 乃終에 縣公署를 襲擊하엿는데 當日은 맛참 公安局長 張大綱氏의 就任日임으로 共産黨은 그 機會를 利用함인 듯 하더라

宜興은 富豪만흔 都市

宜興 共産黨의 暴動은 二日午後까지 繼續되야 保衛團의 警備로 겨우 鎭壓되엿스나 共産派群衆은 武器를 所持한 外에 多數死傷者를 내인 模樣이다 原因은 租稅過重로 憤慨한 住民을 操縱하야 縣城을 破壞하고 囚人을 解放한 것이라 한다 (上海三日發)

共産軍의 蜂起한 宜興은 江蘇省太湖의 西北에 位置하야 滬寧鐵道沿線의 蘇州常州의 各都市와 水路交通의 要衝에 當하야 古來富豪만키로 有名한 都市이더라 (上海二日發)

無錫에 戒嚴令
共産軍의 來襲說로

無錫公安局은 共産軍의 宜興占領의 急報를 接하고 同地駐屯의 第十三師의 第一師團의 戰鬪準備를 命하는 同時 無錫城內에 左와 如한 特別戒嚴令을 布告하엿더라

一、市中往來의 通行人을 檢査함
二、警察隊로 하여금 市中을 巡邏케 함
三、嫌疑者는 直時 拘禁함

崇明島占領
土匪百餘名

其實共産派平服隊?

二日朝 四時頃 崇明島對岸의 崇明에 上陸한 土匪約百名은 약탈을 恣行하엿더라 (上海三日發)

晉軍大同에 集中
奉軍을 迎擊計劃
兩軍의 決戰期切迫?

張家口來電에 依하면 山西軍의 一部는 山西省陽高西北에 防禦陣地를 構築하고 主力은 大同附近에 集結하야 此에 陽高에서 奉軍을 邀擊하야 殲滅을 決하고 此에 對하야 奉軍은 第十二, 九의 兩軍으로써 大同總攻擊을 開始한다더라 (北京三日發)

軍은 第十五師와 第二十二旅을 主力으로 하는 第十軍을 이미 陽高에 大集하고 更히 西方에 退却을 準備하고 잇는데 奉軍은 第二十軍主力은 漸次山西軍의 退路遮斷을 開始하엿더라 (北京三日發)

山西軍의 一部 陽高方面에 退却

宣化, 陽高方面에서 策動하고 잇든 (北京三日發)

湯軍大同占領說

大元帥府發表에 依하면 湯玉麟氏의 騎兵隊는 大同을 占領하엿다더라 (北京三日發)

孫傳芳軍
南軍을 攻擊

三日英人側에 達한 消息에 依하면 孫傳芳軍은 明光의 南方十三哩의 管店附近에 잇서서 南軍에 猛烈한 砲擊을 加하엿는데 南軍의 第一線은 相當한 死傷을 내엿고 南軍의 損害는 目下 明光의 南二十哩의 一界에 잇다더라 (上海三日發)

楊宇霆組閣說
潘內閣財政難으로

潘內閣은 財政難에 陷한 結果 楊宇霆氏의 組閣說이 傳하더라

長江一帶의 被害
日人復活資金
來中旬부터 貸附

長江一帶에서 被害를 當한 日人에 對한 復活資金의 貸附는 來中旬부터 開始하기로 되엿는데 業務를 開始하기 爲하야 政府는 被害者百五十萬六千圓을 貸付하고 其中에서 約二十五萬圓은 被害民中의 窮困者에 對하야 救濟金으로 交附하기로 되엿는데 業務는 開始하기로 되엿고 ... 被害者中 補助를 附金에 依하야는

共後外務省에서 審議中이던바 如左한 貸附方法에 依하야 十一月中旬부터 各各 元住地에서 貸付를 開始하기로 되엿다 (東京電)

一、融資總額 百四萬圓
一、此基金은 元地復歸後의 避難民의 業務再開資金에만 使用케 하고 各元地에서 貸附할 事
一、被貸與者는 民團乃至居留民會로서 信用組合을 設하야 連帶責任으로 하고 南京, 上海以下 長江十一個所의 領事總領事로 하야금 直接監督케 할 事
一、利息은 年三分
一、償還期限은 十五個年
一、最初의 三個年間은 無利子로 하고 五個年은 据置하며 更히 後의 七年間에는 元利總額을 等分하야 返濟할 事

蔣介石氏
藤山氏를 訪問

蔣介石氏는 三日午前十時 股汝耕, 張群兩氏를 同伴하고 東京芝區 白銀町에 잇는 藤山雷太氏邸를 訪問하야 種種 實業上의 意見을 交換한 後 藤山工業圖書館을 視察하고 正午辭去하엿더라 (東京電)

「革命의 策源地 廣東에 來하라」
汪氏等의 全體會議召集通電

旣報 中央執行委員의 名義로 九月十五日 南京特別委員會가 成立된 後 此에 對하야 反對를 取하든 從前의 南京, 武漢兩政府를 取消하고 廣東에 第四回中央執監委員全體會議를 招集에 對한 通電의 全文은 如左 (廣東卅一日發)

旣報中央執行委員의 名義로 ... 第四回中央全體會議의 開催를 要求하는 第二回全國代表大會에서 選出된 中央執行監察兩委員의 職權을 停止하고 更히 進하야 中央執行委員會의 職權을 代行하고 잇다 加之 特別委員會는 現在南京에 在한 바 南京派는 特別委員會를 否認하는 者에 對하야 反革命의 標語를 揭하고 잇다 그럼으로 吾人은 南京에서 中央全體會議를 開함이 無하다 그러나 廣東은 革命의 策源地로서 自由로 職權을 行使할 수가 업슴 ... 것이 다시 同人等은 第四回中央全體會議開會地는 廣東이 最適하다고 主張한다 國民黨總章에 依하야 中央全體會議에서 此를 行한다는 規定이 有함으로 從前의 南京及武漢兩政府는 特別委員會에 依하야 成立된 것인 바 其根據가 이미 非法임으로 自初부터 上述의 規定을 適用할 만한 理由가 無하다 그러나 廣東은 革命의 策源地로서 第二回全國代表大會

播上來廣에來한 汪兆銘氏

廣東政治部에 汪兆銘氏就任

을 此地에서 이미 舉行하엿다 此仍 「急存」의 時에 際하야 中央各委員을 要請하야 廣東에 來하야 第四回中央全體會議를 開催하기를 바란다

信한 바 한 側의 入電에 依하면 中國國民黨 派補 汪兆銘氏는 突然廣東에 到着하야 廣東政府의 首腦 李濟琛, 張發奎氏等의 마즘을 밧고 廣東中央政治部에 入하엿다는데 汪氏는 北京派인 武漢派로서 下江後 今年夏期에 分裂中의 南京派와 武漢派와의 調停斡旋에 盡力하야 거의 成功을 하엿스나 드듸어 絶望하고 石氏의 失脚이 되야 南京派의 一部에서는 김혹이로 汪氏에 合하는 바 잇섯다 今後의 措置에 對하야 期待中 武漢派와 南京派는 再次分裂形勢가 되야 드듸어 收拾치 못하게 되엿다 即 武漢派의 唐生智氏의 勢力下에 잇든 兩湖는 共産黨의 勢力이 잇고 共産派는 廣東에 入하야 廣東國民軍의 北代前의 湖南湖北의 勢力이 되엿슴으로 ... 武漢과 廣東의 ... 에 ... 武漢에서 下江後 一日 南京에 滯在하야 再次武漢派의 ... 調停을 試하엿스나 드듸어 絶望하고 ... 汪氏는 張發奎의 軍隊가 突然廣東으로 離去한 것이 ... 廣東國民軍의 代도今回의 武漢南京兩派의 再分裂에 依하야 不得已 絶望狀態에 陷하엿다고 觀測되더라 (東京電)

共産黨에서도 트、지兩氏를 除名?
十二月全國大會가 注目

反對部派의 頭目 「트로츠키」「지노비에프」兩氏는 今回 中央執行委員會에서 除名되엿다는 報道가 傳하자 各地方部市에서는 兩氏를 更히 共産黨에서 除名식히자고 本部에 對하야 要求하는 者가 만타 하더라 十二月에 開催될 全共産黨聯合大會에서는 出席할 許可하리라 한다 그러나 兩氏가 中央執行委員會에서 (莫斯科二日發)

隴海線戰局逆轉!
馮軍歸德에 突現
直魯聯軍開封을 抛棄?

隴海線方面에 大部隊의 馮玉祥軍別働隊가 突然直魯軍의 左翼을 迂回하야 歸德에 出現한 사닭에 二日以來同方面의 形勢가 逆轉되야 直魯軍側은 開封을 不得已 抛棄하게 되얏슬 形勢에 迫하엿더라 (北京三日發)

急進黨脫黨
부이욘氏

「호꽝크쏑‧브이욘」氏는 二日急進黨을 脫黨하는 同時에 下院外交委員長을 辭職하엿다

開催期만 通知
聯盟이 露國에

勞農露西亞外務人民委員長 「치체린」氏가 去十月二十八日國際聯盟事務總長 「에릭‧드라몬드」氏에게 電報를 寄하야 來軍備縮少準備委員會에 參加하엿다는 意見을 提出하엿다 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此에 對하야 「드라몬드」氏는 「치체린」氏에게 對하야 軍備縮少準備委員會는 先日通告하엿슴과 如히 十一月三十日부터 開催

英國의 建艦計劃
總工費一千二百萬磅

英國의 著明한 海軍省 「바이오터」紙上에서 發表한 英國海軍의 新建艦計劃에 關한 消息은 時節이 時節이니만치 多大한 注意를 惹起하엿다 (倫敦八吋砲八門을 「바이오터」氏의 說明에 據하면 英國은 켄트級一萬噸巡洋艦一隻 (砲八吋砲六門)의 突擊驅逐艦九隻, 潛水艇六隻合計十八隻을 今年부터 起工할 터인데 此는 英國의 海軍計劃으로 大戰以來 最大의 것이다 此에 要하는 工費는 一萬噸巡洋艦은 二百十四萬磅, 八千噸巡洋艦은 各百五十萬磅, 驅逐艦은 各 三十萬磅, 潛水艦은 各五十九萬六千磅으로서 總工費一千二百萬磅에 達할 것이 다 又巡洋艦一隻은 ...

船所에서 契約하게 될 것이며 他는 私立造船所와 契約하게 될 것이다 以上이 「바이오터」氏의 記事의 大要인데 此等의 微細한 數字는 一九二五年發表한 公文書에 基한 것이다 右中驅逐艦及潛水艦의 建造契約은 不遠成立된다 하야 巡洋艦一隻에 對하야는 當局은 아즉 決定되지 안엇다더라

東京勞農支部
大會逐解散

勞働農民黨東京地方支部聯合會의 第二回大會는 一日午後二時부터 芝公園協調會館에서 開催되야 出席代議員百廿名, 傍聽者五千名의 議長席에 合盟官憲이 取締한 警戒裡에 開會하엿는데 運動의 經過報告, 其他의 祝辭, 運動의 經過報告가 不許하다 하야 同時에 臨監의 警官은 解散을 命하엿슴으로 當日의 議案이던 「對支非干涉及國際共産黨承認」及其他는 審議치 못하게 되엿다 同黨은 更히 上村大道兩氏로 하야금 官憲에 抗議를 提出케 하엿는바 이 解散된 大會는 以上至十二月의 定期大會로 잇지 된 것이다 (東京電)

勞農陸軍現勢
總兵力約七十萬人

勞農露西亞政府는 今回國際聯盟主催의 軍縮會議에 參加하기로 되엿는데 同國陸軍의 總兵力은 赤軍五十六萬二千餘이며 此外騎兵師團의 約十二師團이 있고 飛行機는 約六百臺라 하며 總兵力約七十萬人이라 하며 此等은 約六十師團以上이라 한다

大連港에 對抗 胡蘆島에 築港
張氏秘密裏急急準備

張作霖氏는 滿蒙交涉에 對하야 胡蘆島問題에 關한 事項이 업슴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그 仔細多年의 宿望이 고 日本의 大連港에 對한 近年의 打通線의 竣成에 次하야 胡蘆島築港事業에 着手하기로 決定하고 其具體的準備에 對하야 交通部로 하야금 「투‧데」一人側이 去四月十五日 近日方面派 工人의 請負入札은 近近 日本에 對하야 秘密裏에 行하게 된 바 此는 突然 一日에 約 ...

라(北京三日發)

廣東共産黨 汪氏肉迫詳報

廣東의 共産派가 汪氏를 肉迫하엿다 ... 汪兆銘氏는 單獨으로 ... 代表 ... 二千餘名으로 成한 工人은 汪氏의 私宅을 包圍하고 工人代表의 同復職工人의 釋放에 關하야 諸條件을 ... 하는 바 잇섯는데 汪氏는 一次 拒絶하엿고 다시 ... 工人을 解散식히고 ... 十餘名을 逮捕하게 되엿다더라 (上海三日發)

附屬事業을 緊縮 滿蒙鐵道에 投資
滿鐵의 新經營方針

山本滿鐵社長은 東京에서 政府當局에 對하야 今後의 會社經營方針에 關하야 詳細 陳述하엿는데 探聞한 바에 依하면 그 內容은 如左하다 今 外지의 經濟的 方針을 全然 變改하야 從來 比較的 考慮하여 오든 附屬事業은 極力整理方針을 取하기로 한 다 한 研究에 더하야 業과 如한 것은 現下 世界의 生産 費로 보와 到底 競爭하기 不可能함으로 다시 附屬事業의 整理 事業으로서 經營을 當分中止하기로 하고 又 大連港頭 設備도 年年 巨資를 投하야 擴張 改良工事에 努力하엿스나 現在의 港灣으로서는 何等 不足을 感할 境遇는 업는 바 若 利用하면 充分할 터임으로 今後의 大連港 擴張은 當分間 새로 投資치 안키로 決定하엿다 한다 다음 撫順炭坑은 將來積極的 採炭方法을 講究하야 增加하야 支配의 撫炭을 採出量을 增加하야 販路를 擴張 하야 各方面에 供給하기로 決定하엿다 如斯히 附屬事業에 對하야는 新資金의 注入을 圖하기보다 現在의 程度로 能力을 充分히 發揮식히되 그 經費는 一個

年間 新資金約二千萬圓을 投出하야 此는 滿鐵本來의 使命인 滿蒙의 鐵道敷設에 投하야 된 수 잇슬 터이다 此는 大旨로 하야 國策的 方針으로 進出하기로 決定하엿다 한다 以上과 如히 將來 滿蒙鐵道敷設에 一切의 新資金을 投하기로 된 것은 ...

滿蒙交涉의 再開遂絶望?
日本의 頻頻한 督促을 楊氏婉曲히 拒絶

滿蒙交涉의 再開에 對하야는 이미 奉天의 排日運動도 鎭定되고 奉晉의 戰況도 多少奉軍側에 有利하게 되엿슴으로 日外務當局에서는 貝 今이 交涉再開의 好時機라 하야 種種 北京의 芳澤公使에 訓令하야 種種 協議하엿스나 其後 芳澤公使로부터 張作霖楊宇霆兩氏에 對하야 交涉再開의 督促을 通告하엿슴에 不拘하고 兩氏로부터는 何等公式回答이 업고 겨우 近者에게 外交楊氏로부터 非公式으로 時機尙早의 意

味를 含한 婉曲한 反對의 通告를 接하게 되엿는바 同交涉의 前途는 이로 因하야 絶望을 豫想하게 되엿다 即 同交涉에 對한 中國側의 大勢는 依然히 强硬한 反對的 傾向을 有하야 곳 再開를 할 수 가 업스나 日本側으로서 再開를 하는 時에는 不安한 念慮가 有하며 殊히 張楊兩氏도 對內政策上 如何히 對하야 遷延的 態度를 取하게 된 것이더라 (東京電)

急한 心情이 不可缺의 條件이 되얏다는 方針인데 그래도 要求는 如左한 方法에 依하야 復活要求를 承認할 方針이라더라 (東京電)

一、各省明年度豫算中 新規要求及擧大藏省이 이미 承認한 部分에 對하야 削減하야 當該省의 復活要求承認에 應할 事

一、復活要求를 한 省의 旣定經費의 節約을 求하고 그 節約財源으로써 復活要求에 應할 事

戰爭의 危機와 世界革命을 協議
來一月國際黨幹部會議

近着의 情報에 依하면 第三國際黨執行委員會에서는 明年一月十六日 莫斯科에서 幹部聯合會를 開하고

一、世界革命과 新規戰爭의 危機에 關한 件

外 重要한 協議를 遂한다 하더라

軍縮會議

(莫斯科二日發)

緊急에 限하야 復活要求에 酬應
三土藏相魂膽

四日부터의 豫算閣議에서 各省으로부터 復活要求가 猛烈히 起하리라 觀測되나 大藏省이 各省의 復活要求財源으로 留保하는 金額은 約四千六百萬圓에 不過하야 各省의 復活要求의 一部分을 充滿케 함에 不過함으로 三土藏相은 可及的 緊

專任外相을 議會前任命?
閣僚進言으로

對中外交에는 相當한 日子가 지나도록 田中首相은 當初부터 外相을 兼하고 잇는데 最近有力閣僚中에 首相에게 右의 理由로 外相의 適任者를 推薦할 劇務라는 말하면 省內의 局課長은 勿論海外의 大公使領事에 至하기까지 意見 ... 一旦 官運動이 이 잇게 될 것이오 ... 首相은 ... 前途의 ... 을 우선 議會前에 專任外相을 任命할 ... 首相은 彼로써 ... 가 ... 外相 ... 光石 ... 言 ... 을 ... 할 事를 未知라 하더라 (東京電)

對단질問題 佛國主張은 無理
伊上院議員짓氏言明

伊太利上院議員 「짓」氏는 日佛國과 紛爭中인 「단질」問題에 關하야 新聞記者에게 左와 如히 言明하엿더라 (羅馬一日發)

佛蘭西는 「단질」을 自國에 歸屬하려 하나 此는 甚히 無理한 注文으로 何人이든지 此를 首肯할 者는 無할 것이다 實際로 「탄질」이 佛國에 屬한 事는 「모로코」에 不屬한 것이다 今一千九百十六年 佛伊協約當時에는 問題가 되엿는데 其時 全 와의 關에 交換된 覺書中에 佛蘭西와 當時의 佛蘭西外相 「로링」氏는 政府는 「伊太利는 一千九百十一年 十一月四日에 締結된 佛獨協定에 加入하엿다 此에 依하야 伊太利는 巴大戰後에 獲得 한 諸權利를 享受하는 것이라」 하엿고 또 依然獨逸이 無하다고 言明한 일이 잇섯는 바 此는 「단질」의 佛國의 모로코 編入을 하지 안이 한 事實을 證明함이라

佛國下院召集

佛蘭西下院은 二日召集되야 卽日閉會되엿다더라 (巴里二日發)

昨日부터 豫算閣議
議論區區豫想

政友會年來의 主張을 具體化함에는 年度豫算을 審議하는 豫算閣議는 四日午前十時부터 開催키로 決定되엿는데 當日은 먼저 三土藏相으로부터 明年度豫算編成方針의 大綱을 說明하고 政友會年來의 主張인 産業立國, 農村振興, 地租委讓, 其他의 諸事業의 實現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諸要求에 對하야는 可及的 明年度의 新 方針을 述하고 다음 明年度의 歲入出豫算의 說明을 하기로 되엿다 그리하야 各省新規事業의 承認削減의 理由說明을 하고 各省의 復活要

求의 希望에 入하기로 되엿스나 閣議中에 는 藏相의 豫算編成方針에 異議를 挾하는 者이 잇서서 自然 豫算閣議는 數日 續行되리라 觀測되더라 (東京電)

橫說竪說

◇田中首相이, 中國漢으로 直通하야, 外相을 兼攝하엿스나, 專任外相 議會와의 關係로, 專任外相을 둔다는 말이라고

◇거기에는, 이러한 珍說이 잇지 田中內閣이, 産業立國策을, 너무 重히 하므로, 實業을 하엿든 바, 農村에 肥料를, 公平하게 分配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各閣僚와 與黨은, 또 그 珍說을, 活用할 가 바서, 專任外相 任命을, 田中氏에게 進言한 模樣이여

◇田中首相에게는, 또 이런 奇談도 잇지, 軍縮會議 五, 五, 三 比率을 조곰 나 비 무슨 意味 나 고, 質問을 가 子 말 갓 흔 장 담 도 잇지

◇何如間 田中大將은, 首相 이 란 地位에 올은 外에, 人格과 識見이, 豫想外로, 떠러진것은 事實이어

◇反逆的 放火는, 印度에 蔓延되야, 全印度에 革命運動이 勃發되엿다 한다, 中國革命의 領袖로 一時 安心되리라든 英帝國 또 뭇 살일 生起 고

補陰補腎의 神奇한 妙藥
卓越한 效驗은 婦人界의 福音

본藥房에서 世界의 藥材를 採取하야 本藥品의 使用은 婦人界의 福音 東西의 妙方을 參照하야 化學的 效力이 잇소외다. 四, 遺精 作用으로 子宮에 病이 特效합니다 ... 「오기나球」 五, 最新 作用으로 「오기나球」 는 元氣를 復活케 하며 精力을 增進케 합니다 六, 本藥은 精神에 衰弱, 子宮出血을 豫防하야 婦人病을 根治하게 됩니다 七, 用法이 簡便하야 效驗이 卽速

그리고 따라서 頭痛도 腰痛도 ... 本社品은 「오기나球」 ...

一, 本藥品은 消炎作用으로 子宮炎, 帶下를 消除합니다
二, 防腐作用으로 ...
三, 快感作用이 有하야 ...

子宮藥 오기나球 價 八日分 二十日分 ...

總發賣所 (ㅎ기나球)本舖 笹岡省三藥房 電話京橋二八八七番

●家庭에업지못할常備神藥

方名	定價	效能
解熱散	二十五錢	感氣、頭痛
祛痰散	二十五錢	咳嗽、百日咳
賣丸	二十錢	消化、胃弱
健胃腸散	二十五錢	胃腸、滯症、吐瀉
含嗽藥	二十錢	咽喉痛、含漱用
驅梅膏	二十錢	下疳、梅毒、切傷
百應膏	二十錢	拔根、膿吸出
開明水	二十錢	流行眼疾、眼病、爛眼
電氣丸	二十錢、二圓	痲痺、腹痛、胃痛
金鷄蠟丸	二十五錢	瘧疾、胃痛
神効膏	二十五錢	腫物、疔瘡、痔疾
ダルマ膏	二十錢	濕疹、火傷、凍傷
大塚胃散	二十五錢	濕症、消化不良
驅虫散	二十五錢	蛔虫、蟯虫、寸白
萬能液	二十五錢	風邪、鎭痛
沃度丁幾	二十錢	打撲傷、痲痺、打刺
治癩球	一圓八十錢	...
根治丸	一圓八十錢	根治及下痢

右는 京城賣藥界에 名聲이 藉藉한 家庭常備藥으로 原料의 精密함과 效能의 迅速함은 本舖에 限함

京城南大門通四丁目 製造發賣元 救世藥館 電話本局二九六九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六九番

二錢郵票보내시면 割引券及規則書送呈함

ClibPDF - www.fastio.com

朝鮮體育會主催・東亞日報後援

幾多의波瀾겪고 最後의決戰에

小學은崇德軍連三年優勝

=蹴球大會決勝戰經過=

初冬의天候로는더어더볼 나위도업게 맑은하늘을 찌를듯이 뻐르는소사오르고뻐르는거어줄으는蹴球! 一攻一守에緊張한觀衆의歡喜와 數百健男兒의 피를끌케하는蹴球大會! 準決勝까지幾多의波瀾을겪그며 血戰激鬪하야勝한各團의兩勇者의最後覇權을決할大會는第三日인四日午前 十一時小學團을爲始하야京城運動場에서擧行되엿다 小學으로는平壤崇德對興東戰으로열린바九對零으로崇德優勝의 榮冠을永久히 누리게되엿다

小學團決勝 平壤崇德優勝

四日午前十一時開戰 審判李丙三(主)金鍾遠朴宇秉(線)崇德先蹴(六十分間)

【前半】 小學團編入以來連二年優勝한平壤崇德軍은體力에잇서서中學다운觀이잇섯다 今年處女出戰인始興郡의興東軍은體少한데比하야善戰하엿스나前半에三點을失하다

【後半】 興東은하프라인을넘지못하고거이連續的으로六點을失하엿고最後五分前에겨우쭐킥을한개어둘뿐이엿다

(興東) [illegible]

G RF LF RH CH LH RW RI CI LI LW

(崇德) [illegible]

G RF LF RH CH LH RW RI CI LI LW

(興東) 前	後	計		前	後	計 (崇德)
0	0	0	得點	3	6	9
3	10	13	門蹴	0	1	1
2	5	7	隅蹴	0	0	0
1	0	1	自由	1	2	3

朝蹴1崇專0

三日午後二時卄分開戰 審判申基俊(主)[illegible](線)崇專先蹴(六十分間)

【前半】 兩軍의對戰은豫想以上으로崇專軍善戰力鬪하야十六分에FA의射擊失敗하다平凡

【後半】 朝蹴一齊히總攻擊開始하야자조肉薄하엿스나十七分의危機를最後로거더드리고接戰은하푸라인에서繼續

【延長】 前半五分동안崇專쭐킥二次를當하고後半三分에依然猛烈의朝蹴軍포워드敵門에서混戰타가CF金源泰君슈팅으로 勝敗의쭐 一點을엇다

(朝蹴) [illegible]

G RF LF RH CH LH RW RI CI LI LW

(崇專) [illegible]

(朝蹴) 前	後	延	計		前	後	延	計 (崇專)
0	0	1	1	得點	0	0	0	0
2	0	0	2	門蹴	3	1	5	9
0	0	0	0	隅蹴	1	0	1	2
1	1	1	3	自由	1	1	0	2

—第二日午後續—

靑年準決勝 延專3普專0

三日午後一時開戰 審判玄正柱(主)沈相福朴鍾惠(線)普專先蹴(五十分間)

【前半】 二分에延專LI金振爽君負傷으로補交替後普專一氣呵成突進코너킥을찻스나킥機를逸하고五分延專RI차지하야 敵陣突入쭐을지은後一進一退의兩軍陣勢는十二分과十七分에普專機를노치고延專포워드巧妙하게前衛를하야 CF金允基君無難히쭐을지으니때는卄分

【後半】 五分에벌서普專페날티킥을當하야 CF李榮敏君킥쭐에걸려니第三쭐을짓고普專十分十四分十七分의三大好運을지을번하야延專堅守로休矢

(延專) [illegible]

G RF LF RH CH LH RW RI CI LI LW

(普專) [illegible]

(延專) 前	後	計		前	後	計 (普專)
2	1	3	得點	0	0	0
3	2	5	門蹴	8	3	11
0	1	1	隅蹴	1	1	2
2	1	3	自由	1	2	3
0	0	0	[illegible]	0	1	1

中學準決勝 崇實2儆新1

三日午後三時卄五分開戰 審判李丙三(主) 朴宇秉[illegible](線) (五十分間)

【前半】 崇實대번에突入하엿스나포워드錯足의儆新軍前衛는斜線의攻法으로六分八分에거듭射擊하엿것만鐵壁가튼崇實守備의防禦로無爲되고反히LI吳用八의巧捷突入에十八分遂히쭐을너흐매卄二分儆新은페날티를利하얏스나G下失敗으로不成二分後에再次C下斜線의攻擊로成功하야一點을挽回同點競技는白熱

【後半】 崇實初頭에一次攻擊을밧다가戰勢뒤집혀前衛總動員繁히襲擊터니十三分LW킥쭐에入하야儆新의致命傷인一點을得

(儆新) [illegible]

G RF LF RH CH LH RW RI CI LI LW

(崇實) [illegible]

(儆新) 前	後	計		前	後	計 (崇實)
1	0	1	得點	1	1	2
5	10	15	門蹴	4	2	6
2	1	3	隅蹴	1	1	2
1	3	4	自由	1	0	1
0	0	0	[illegible]	1	0	1

培材4開城0

三日午後四時卄三分開戰 審判鄭賓昌(主) 金鍾萬朴鍾泰(線) (五十分間)

【前半】 칭칭決勝으로갓가워가는培材軍의最終戰이라그러한지培材의포워드의敏捷한動作은이게임에서겨우發揮케되엿이잇서九分에RI 十七分卄二分에CF가直線的으로쭐을번가라가며너허三對零

【後半】 開城軍五分에力戰善鬪하야스리브한쭐은[illegible]門앞에하야効를엇지못하고[illegible]培材軍의포워드는敵陣에서놀다가卄二分또一點을加하야大勝

(培材) [illegible]

G RF LF RH CH LH RW RI CI LI LW

(開城) [illegible]

(培材) 前	後	計		前	後	計 (開城)
3	1	4	得點	0	0	0
0	1	1	門蹴	9	8	17
0	0	0	隅蹴	2	2	4
2	1	3	自由	2	1	3

今日부터開催될 專門蹴球大會

大阪專門校體育聯盟蹴球大會는今五日부터京城運動場에서擧行할터인데入場은無料이며競技順序는다음과갓다

五日午後一時부터 大阪對高農戰과京工對高商戰

六日午前九時부터 以上一回戰勝者와法專對醫專 午後二時부터決勝戰

【規定】 豫選은六十分間決勝은九十分間

第八回全朝鮮蹴球大會最終日經過

兩雄對立의爭覇戰 白熱된「最後五分間」

「직선뎍으로곡선뎍으로쌀이구을때 수천명관중의손에는땀이쥐이엿다」

小學團은崇德優勝

최후의운명을결할 대팔회 전조선축구대회(第八回全朝鮮蹴球大會)의대삼일인 사일은외다! 봄날가치 맑게개인 푸른하늘을 찌르는듯 쌀이반공에 소슬며나 비로논곡선뎍(曲線的)으로꼼으로 외노는쌀이사선뎍(斜線的)으로 범가치날뛰는 용사들의 발끗해 는광경은 마치도은천으로 돌려 롭지온월은 운동장 안에서자유자재로스콧스의 예술다운감미(美味)를맛본관중에게늣기게한다매일회전부터긔다(幾多)의자신잇는 강뎍들을 물리치고회수를거듭할수록 만흔의란과 곡된을켜거가며 용감히차자 최후의결승전에들어온 각단레의 맹용(勇猛)의바진온실로반도축구사상(半島蹴球史上)에일대광휘잇는페이지를 수놋케되엿다 이리하야오전열한시부터 소학단외숭덕(崇德)과 시흥의 흥동학교(興東)와의대전이 벽두의운동[illegible]으로 장엄또쾌활하게열리니만리가튼 박수와 환호성을 우송하야 뭇옴마치고 오후한시부터중학단외결승전인배재고보대숭실중학전(培材高普對崇實[illegible]) [illegible] 훈련위칭공을 흔들엇다 [illegible]

◇손에땀을쥐는관객들(上) ◇백열된결승전경과장(下)

參議、正義兩府員에 無期와七年判決

신의주디방법원에서 被告는無罪를抗辯

작년십이월십일에 예심에 부첫든 참의부원박긔범(參議府員朴基範)과 금년이월십륙일에예심에부첫든 정의부원리학송(正義府員李學松)의공판은 지난십일일오후한시에신의주디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대일호법정에 개뎡되엿는데 재판장은전긔참의부원박긔범(朴基範)에게는 조선각디로 다니면서 조선○○군자금(朝鮮○○軍資金)을모집한것과 살인방화등의 제령위반죄에 범한증거가 충분하다고하야 무긔징역에처한다고 언도하엿스며 정의부원리학송(李學松)에게는조선○○군자금을모집한사실과 기타방화등의 제령위반죄에범한것의 증거가 충분하다하야 징역칠년(懲役七年)에 처한다는언도를하엿다는데 피고들은자긔는아모죄도업는사람이라고항변하엿다더라(신의주)

新娶男便에게 五千圓請求訴

시내수송동(壽松洞)일백사번디 음근이(陰根伊)(二三)란녀자는강원도원주군원주면태장리(江原道原州郡原州面台庄里) 최한성(崔漢成)을거러경성디방법원민사부에 위자료오천원(慰藉料五千圓)의청구소송을 데긔하엿다는데 소장의 내용을보면 원고는지금으로부터칠년전에피고와결혼하야 살아오든바 원고가아희를배후로부터 피고는 쉬랑업시학대하기 시작하야 도더히그집에잇슬수가 업슴으로 얼마동안친뎡에와서잇든중피고는다른녀자에게 장가를가고 원고를도모지도라보지 아니함으로 혼자살길이업서 장래생활비를 재산할에일만일천원가량이나잇서야하겟스나 아직소송비용의 관계로 그일부인오천원을위선청구하는것이라더라

빗졸닌화썸에 朝鮮人射殺

자긔도제총쏘아서자살 抱川에演出된慘劇

십일월이일 오후네시경 경긔도포천군 소흘면직동리(抱川郡蘇屹面直洞里)사백 사십일번디 일본인신교문일랑(新橋文一郞)은이런밧 사냥총으로 자긔집에차저온 그동리 박재광(朴載光)(三五)을그집문밧에서두발이나쏘아 아배를뚤허 즉사식히고 자긔도그곳에서 약십간쯤되는밧 가온데에그총으로 자긔몸을 저누고발구락으로 방아쇠를 눌러자살하여버리엿는데 둘이다 죽엇슴으로 그원인을알수 업스나가해자신교문일랑은 빗을만히 지어수일전에도평양(平壤)으로부터빗바들 사람이차자 와섯느니만큼빗졸님이 심하야 피해자박재광에게 자긔전답을 정리하야돈을좀어더 달라고부탁하엿섯스나박재광은 차일피일 하고힘을써주지 안는다고 분개하여그와가치박재광을죽이고자살한것인듯하다더라(포천지국뎐화)

賃金引上으로 金堤勞組復業

김뎨역전 김뎨로동조합(金堤勞働組合)운수부원 삼십여명은과반에운수조합과약정(約定)한대로임금을 주지아니함으로 이에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는데 이로인하야 운수조합측에서는 작일에세번이나 청입코자 하는것을 는과반에 약정하엿던 임금보다도이삼할이나 인상하야 주기로되야당일오후두시부터복업하엿다더라(김뎨)

晝夜盜難續出

동대문밧회긔리에서

동대문외회긔리(回基里)에는년전부터 절도사건이 빈빈하니러나그피해 정도가 불소하엿는데금년가을이 잡히면서부터는 밤도둑이 매일밤 횡행한다는바한달전에어느 사숙리관에 침입하야사람 자는방에 걸난양복등속을훔쳐간일을 비롯하야 한집에는어느날 돈을해노라는 협박장이나르럿고 거의매집에 침입하야창구멍을뚤르고 무엇을 훔치려다가 발각된것이 수십차례나되다는데 지난일일 밤에는 한집에세번이나 침입코자 하는것을 쫏처나하며잇슬을 지나서 다시쫏차버렷스며 지난이일 밤에는또다른 한집에 드러와 방문안으로상근쇠를 손코잇는것을 쫏차버렷다는동인십이 소란 하든주멋날전에는 이동리 부근서한사람이밤길을가다가 흑대 하엿든금전 전부를 강탈당하엿다는데그외에 소소한 피해가부지 기수임으로 동리사람은 밤잠을편히자지못하며 전전긍긍 한다는바경찰은 아직까지 범인을한사람도잡지못하엿다더라

列車轢兒

생명이위독

작사일오전 아홉시오십분에시내미근동(渼芹洞)다리밋을통과하는봉천발 경성역착 렬차에나히일곱살 가량되여 보이는조선 [illegible] 원에입원식혀 응급치료를 하엿스나생명이 위독하다하며 주소청명은미상하다더라

全印度에革命運動

英官憲은未然에檢擧斷行

「탈파이구리」地方더욱嚴戒

背後엔勞農露國後援

인도(印度)에잇는【비협동운동(非協同運動)】이이러나서 한동안세상사람의흥미의주심이되엿고 이로인하야다한 희생자를내이여 영국사람으로하여금 간담을서늘케한후맹렬하든긔세가 다소진정되여상태에잇섯스나 내용에잇서서반영운동(反英運動)은 은밀사이가업섯스며 한편으로는『쏘비에트』의 남진정책(南進政策)이 점차로 확당되어 이에공명한일부인도인의 긔세가더욱치렬하여 영국관헌의주의는새로운방면으로 기울어지게되엿섯는데 얼마전부터 인도각디에는 모종의비밀결사가성행하여 이에따른원갓풍설도 만하엿섯다 지난이일에이르러 혁명운동계획(革命運動計劃)은 맛춤내 관헌에발각되자 전인도(全印度)의혁명분자는 모조리가택수색을밧는동시에 속속검거를단행하는중이라는바「곤포아、탈파이구리」디방을 더욱경계중이라더라(아라하밧도던보)

革命紀念을機會로 死刑廢止決議

사형대신으로무긔도형

◇勞農中央委員會

오는칠일이 로서아혁명십주년긔념일(露西亞革命十週年紀念日)임으로 로서아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서는 종래에써오든사형(死刑)을페지하기로하고 그대신무긔징역을하리라는데 로서아의형식법률로는 사형이업스나 반혁명분자(反革命分子)에한하야 즉결처분으로사형을시행하든것이 금번에페지되는모양이라더라(나우연던보)

稅關吏、警官을網羅한 新義州疑獄公判

【被疑者卄一名中八名만起訴裁判】

白日下에들어난罪狀

그동안세관(稅關)의 일대의옥(一大疑獄)으로인하야만흔주목을이끌어오든신의주세관리(新義州稅關吏)의부정사건은지난구월초순에 세관리성택계길(星澤啓吉)을검거하게되자 문득사건의내용은의외에확대하야으로경찰은더한층검거의손을늘어경성인천평양 진남포(京城仁川平壤鎭南浦)등디에서서 련좌되어야래사십여일동안에이십팔명을피의자(被疑者)로속속검거하야신의주서(新義州署)에서로부터일일이취조한결과 드듸여 검사국으로송치되엿다가지난이일오후한시에신의주디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에서전긔 이십팔명중이십명은긔소유예(起訴猶豫)로되고팔명만긔소(起訴)되야본도검사(本島檢事)의립회와[illegible]재판장주심으로 공판을진행하야 피고성택게길(星澤啓吉)에게는 징역이년(二年)복택(福澤)미목(味木)굴내(堀內)가디(加池)관근(關根)등에게각각징역일년(一年)의구형(求刑)을하고휴게(休憩)를하엿다는데이제긔소된피고의성명과사건의내용은다음과갓다더라(신의주)

巨額賞金騙取

【엉터리먹고알먹은그犯行】

전긔 피고가운데복택(福澤)은가지(加池)와공모하고 재작년삼월에룡천(龍川) 에사는고모(高某)로부터벼(籾)백표(百俵)를밀수입한것을 인명하고도 직무상검거 한것가치 꾸며 세관순사(稅關巡視)의처(妻)의명의로감시과(監視課)에거짓신고를하야 상여금과백 오십원을편취하엿스며 금년일월에 전긔홍하범(洪河範)은비단(緋緞)칠천구백원어치와 삼천삼백원어치의 밀수품을 압수한후 자긔아우의 처(妻)의명의로신고서를 위조하는등 두차례에상여금 이천원을 타먹게하고그보수로도 이백이십원을 바닷스며피고성택(星澤)과굴내(堀內)는재작년오월에 신의주역(新義州驛)에서비단사백원어치의 밀수품을 압수한후라인명의로신고조서를 위조하야 감시과에 신고를하고 상여금이백원을편취하고 또한성택(星澤)은위화도(威化島)에서비단이천원어치를 압수한후 전긔와갓흔수단으로하여 상여금 일천원을편취하엿슬뿐만 아니라 작년팔월경에부내 양품덤서국영길(府內洋品店西谷榮吉)과 공모하고비단 [illegible] 관근(關根)도대략전긔각피고와가흔수단으로 만흔상여금을타먹은것이증거가충분하다더라

▲현임경성부정[illegible] ▲현임신의주세관[illegible] ▲현임대판부[illegible] ▲현임인천세관[illegible] ▲현임신의주[illegible]

警務局長秘電으로 金烏寺包圍搜索

모중대사건범인이잠복햇단혐의로 경북경찰부에서동연대활동을개시

헛물켜고徒勞空歸

경북경찰부(慶北警察部)고등과(高等課)에는지난일일밤에선산경찰서(善山警察署)로부터지급한 정보가 도착하엿슴으로 경찰부장(鈴木部長)과대구서[illegible]계주임[illegible]이 이삼십명의경관대를거느리고 선산으로출동하야 동군금오산(金烏山)에잇는금오사(金烏寺)를포위하고 엄중한 수색을하엿스나 아모소득이업시 도라왓다는데 그내용에대하야는 보도긔자유가업거니와 수일전에 [illegible]로부터 경무국장[illegible]으로부터 경북지사(慶北知事)에게 모중대사건 진범인이 [illegible] 친전뎐보(親展電報)가 [illegible]

利益만五百萬圓

무척남는조선뎐긔사업

조선을통하야 최근에 일본재벌삼릉(三菱)을필두로각디에서뎐긔사업(電氣事業)이날로증가하여가는중이며 우선투자된 것만하여도 총자본이 사천삼백십백여만원에달한다하며최근일년간사업을보면수입액이일천이백삼십오만팔천원에대하야지출이팔백이십륙만일천원으로사백구만칠천원의리익이잇서월할의배당이잇는데조선인한사람에는일년간평균일원오전가량의뎐긔료를내는세음이라더라

江華遭難漁船後報

遭難十二婦女中 四名은九死一生

본적디에표착해살아나

긔보=경긔도강화군길상면선두리(京畿道江華郡吉祥面船頭里)에서부녀십오명이사공한명과가치적은배를타고지난이십팔일오전아홉시로부터길상면 동검리(東檢里)부근바다로굴(石花)을따든중 폭풍우가이러남으로 [illegible] 배에탓든여러사람은모다그부근섬에올라가피란하고잇든것을 바라본선두리의 주민들은식료품치우등을배에다싯고사공두명과가치 권긔사람들이 피란하고잇는섬으로가서모다구원하여가지고인천(仁川)방면에서오는어선(漁船)을맛나부녀자를권엿다더라

▲서울靑年會 시내견지동(堅志洞)서울청년회에서는지난이일오후한시부터그회관에서집행위원회를열고 [illegible] 휘문고보맹휴사건(徽文高普盟休事件)에대하야경찰이 간섭한다는것과 중앙고보맹휴사건(中央高普盟休事件)에대하야 토의코저하엿스나 경찰당국에서 학교문데에 관하여서는 일절을금지함으로 다음과갓흔의안을 결의하고 산회하엿다더라

一、永同靑年會事件調査發表가 [illegible]

一、執行委員補選 被選者 吳淳一

▲天理敎靑年會 오는五日오후一시부터 [illegible] 공회당(公會堂)에서[illegible]조선중앙대회(中央大會)를 거행하리라더라

▲에스페란토協會 사업진행상 [illegible]회합한다고

日時十一月五日(土)午後六時半 場所 鐘路中央基督敎靑年會

家庭不和로 飮毒自殺

방랑한가장이

황해도신천군 노월면초당리(黃海道信川郡蘆月面草堂里)한계갑(韓啓甲)[illegible]은 동리에유력자로써연래로 몹시주색에 방탕함으로그부인과 자녀들은항상 여러가지로 말류도하고 권고도하엿스나종시 듯지안코방탕한 곳에만첨혹함으로 결국은 부인과자녀에게 배척을밧기까지에 이르런바하기도 하며한편 부끄럽기도하야어던날 동군북부면 석당시(北部面石塘市)에가서술을만히먹은후 양재ㅅ물을 사가지고오든도중오국리남동(五局里南洞)에서 양재ㅅ물을먹고 얼마간고[illegible]

◇휴지통

▲경북경찰부에서모단데가금오산(金烏山)에드러간다고 대동원했다나 나렷스나헛물만켯다고▲이래저래세상만식그럽게하는모양이야……▲그바람에 대구경찰서순사 일고모(日高某)는넘어급히출동준비를하노라고분망한틈에 폭발포를다다가 손바닥에한방…탕…▲경찰서가 우군우군하게한바람이단범석을이르키엿다나▲하여간안심못할미구리군…▲치위갈일괴가작구만더워가는모양임으로감기가류행한다고▲먹을것업는신세에하나님조차사람들청이가시게한다는것이 빈민의부르지짐!

銃器를密輸 ○○團에供給

유력혐의자일명을톄포

平壤署突然大活動

평양서고등계(平壤署高等係)에서는 수일동안비밀히활동을 개시하는데내용은 극비밀에 부치므로 [illegible]던바지난 삼일에는 돌연히 모중대사건(某重大事件)혐의자라고 [illegible] 성천군삼덕면[illegible]에잇는유력혐의자김모(金某)를형사이명이 [illegible] 장인치하야 엄중취조중이라는데 자세히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만주 방면에다수한 총기를 비밀히사서 ○○단에게 무기를공급한사실이라더라(평양)

陽氣不足

[illegible]

淋疾

[illegible]

梅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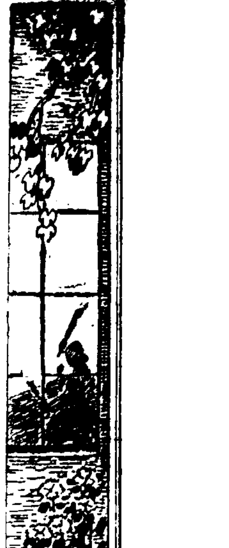
[illegible]

氣血不足

[illegible]

‖注意‖

[illegible]



가을철털빠지는 것을방비하려면 영양분이필요 (二)

위장에고장업시엄마 든지영양에주의하라

◇産後病後의諸種症因

그렇데특히병후산후가아날이 엇든사람은 너무갑으면 도리허 지라도보통의부주의로부터모발 이 빠지게되는례도만습니다 신테 가 건강하고 영양이조흔때모발 이 만히빠지는때에는그것에대하 야 무심하기쉽습니다 왜그러나 하면 신테만건강하면 머리는빠 지지아니한다고 일반이 생각하 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발은 몸이이큰튼튼함에도 불구 하고 머리피부의 불건강으로인 하야 놀랄만하게 빠지게되는경 우가잇습니다 그원인에는 여러 가지가잇습니다 두부에 헌데가 생 례를들면 단독(丹毒) 습진 (濕疹) 백선(白癬)이잇스면머리 가만히빠지는것은물론이지마는 그것은 그병을 치료하기만하면 곳회복됩니다 이것들과는 반대 로 피부표면에는 아모변화가업 시두부(頭部)의

분필선

(分泌腺)족 피지선 (皮脂腺)의고장으로머리가빠지 게되는경우가만습니다대개로그 것으로인하야 머리가 가렵게되 고비듬이만히생기게되어따러서 털이빠지게됩니다 그것은 피 지(皮脂)가너무완성하게분비되 는 원인입니다 이것을 무심하게 방임하여두면 부지불식간에 참 혹한지경에이르게됩니다고로이 와가튼증세의 남모가 가장두려 운것이라고할수잇습니다그렁으 로우리는 항상머리비슴빠마다 빠져나오는머리의수 또는상태 에주의하야 그것이병뎍인가아닌 가를판단하야 조금이라도 병뎍 인것이짐작되거던곳처치료하여 야합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는의 사와상의하야 그식히는대로 하 는것이 가장안전합니다 그다음으

머리감는

법입니다 일반 으로머리감는것에대한섭생법이 부족합니다 원래머리털의 영양 되는것은 머리피부임으로 머리 피부를정결하게하는것이무엇보 다도필요합니다 즉청하게씻는 것이필요합니다 그것에대하야 매일문제가감는회수입니다 엇 던사람은 자조감을사록 조타하

세발료

(洗髮料)로서는포 해래(布海苔)춘실분(椿實粉)등이좃 습니다비누나발세분(髮洗粉)등 은사용하기가간단하지마는그중 에모함되어잇는『아루카리』가해 됩니다 두피가약한사람은 삼주일 내지일개 월에한번식감는것이좃습니다 ...

◇講習種目

목도리 싹겟 아히들帽子 洋襪 手匣 紐綾 축쇄其他 (다구)

大邱女靑主催 編物講習會

五日부터朝陽舘에서

...

朝鮮人【12】家庭生活論

孝는百行之源?

婦女賤待와子女無視 父母의不當한要求

醫師 金太陽

第一、家庭의經濟的基調

第一로朝鮮人新家庭은『經濟的上寒』우에서期成할바이다凡人類生活―더욱이近代生活의 基本的이며恒久的의하하야職業的自覺을獲得하 ...

崩壞를

現代의『結婚思想』―一部新進階級―은大家族主義가實行하는早婚―無爲無能未熟한 ...

大家庭

...

勞農露西亞의 社會保險制度 (一)

그組織, 範圍及成績

G生 抄

總論 (엠、넨켄코에依함)

쏘베트 로시아의工人의社會保險制度는 十月革命의産兒라고할수잇스나 그源泉은멀리 帝政時代에까지 ...

一、保險은모든種類의 被傭者를包括할것

二、保險料金은 全部雇主의負擔으로할것

三、保險모든種類의 失業을保險할것(即一時的廢人、病者

四、保險은 損害된賃金全額을賠償할것

五、保險은 被保險人의自治로서運用할것

...

쏘비에트聯邦 映畫界의槪觀【一】

十年間의發達狀況

序論

『십월혁명』의승리후번서식년―쏘비에트련방의연극계예술계의발달은세상에 자랑할만하게되엿다 ...

二 쏘비에트영화의력사

...

三 設備監督시나리오作家

...

光月團大滿員

매야광무대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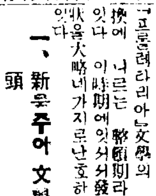
쏘베트文學十年【下】

混亂期에서整頓期까지 社會相의反映으로의各派

眞理와

新經濟政策時期

一、新부주아 文學의擡頭



二、小부주아 文學의分裂

三、쏘베트 인텔리겐치아文學의勃興

四、프롤레타리아文學의質的轉換

勞農作家의片影

(上)이와노프 (下)파운로윗치

라듸오放送

十一月五日土曜

◇午前一一、〇〇料理品目、日用品時勢◇午後〇、〇〇講演 ...

傳說의朝鮮

【四十九】 거미와구렁이싸홈

지금도쌍을파면구렁이 비늘이나온다고한다

長壽山傳說 (失名氏寄)

...

◇鮮山少年軍來숲 ...

少年東亞日報

『新刊紹介』

太廣 商標 생긔대

斯界覇權

"광목중제일조흔광목"

광목을입는 터에는 한물 을더입드라도 얼마인지 불음 니다

이러한 모든사 정을짐작하야 아모쪼록은 ... 하고 얌전하게 짜내여 한폭 이라도 갑싸게 펴는것이 우리 의광목입니다

종래 오천만원 이라는대금이해 마다 광목갑으로 조선에서빠저나 간다는생각을 하야 애를태우 며짜내는 우일 의우리광목 입니다

개인의리익보 나민족적경제 를도라보아 사랑 하야입고 힘잇 게서로권면합 시오!

京城紡織株式會社

ClibPDF - www.fastio.com

聯合産業品評會
二日부터宜川서開催

平北宜川에서 一府九郡聯合으로 産業品評會를 十一月二日부터 同八日까지 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果然二日이 當到하야 午前十一時半부터 大會場인 宜川公普校에서 品評會長 金永杰氏 司會로 開會의 式辭가 잇슨後 이어서 平北知事代理로 菊山內務部長과 協贊會長 崔景植氏外 四氏의 祝辭와 祝電朗讀으로 盛況裡에 開會式을 擧行하엿다더라

▲遠三公普校 自七日 至八日 二日間
▲松田公普校 自二日 至三日 二日間

多數來賓歡迎

別項報道와 갓치 宜川서 開催되는 産業品評會를 贊助키 爲하야 宜川有志一般은 協贊會를 組織하야 準備에 紛忙中이든바 開館式이 씃나자 第一會의 一般會員及來賓七百餘名을 招待하고 協贊會長 崔景植氏의 歡迎辭와 品評會長 金永杰氏의 答辭가 잇슨後 [illegible] 賓主가 歡迎을 [illegible] 하엿다더라

宜川上空飛行

十一月三日의 氣候는 有意하게 溫和淸明한데 平壤서 온 陸軍航空機는 宜川의 上空에서 飛行하면서 開館式을 祝賀하엿스며 産業品評會를 觀覽코저 各地에서 雲集한 사람은 萬名에 達하야 未曾有의 大盛況이라더라

協贊會餘興

今番宜川協贊會의 餘興係에서 招來한 各活動寫眞과 新派演劇과 動物園과 奇術團과 其他娛樂이 [illegible] 大盛況을 呈하야 日日觀覽者는 無慮數千名에 達한다더라(宜川)

仁川酒類

來十九,二十兩日에 仁川山手町公會堂에서 仁川 始興 富川 金浦 江華 一府四郡의 聯合으로 朝鮮酒品評會를 開催하기로하야 目下仁川府에서 其準備를 하는中이라더라(仁川)

槐山生産

槐山東津堤防 竣工式을 擧行하는 同時에 品評會도 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豫定과 如히 本月一日부터 [illegible] 陳列室 又는 槐山公普校 敎室에서 各種의 種類로 展覽을 開館하엿다는바 出品數量은 다음과 갓다더라(槐山)

一、統計展覽會 圖表一六〇枚 標語七九枚 宣傳歌五九枚 標語一五〇枚
一、生産敎育品評會 農産品及敎育品 一二五〇點
一、酒類品評會 淸酒四十六點 濁酒四十七點
一、家禽品評會 家禽一一〇首 種卵一一〇點 飼料器具類一〇點
一、畜生品評會 畜生五〇頭
一、詩文大會 詩文一五五〇枚

龍仁産業

京畿道龍仁郡에서는 全龍仁各學校及各面聯合 物産品評會를 來六日부터 向十六日間 盛大히 開催하리라는데 그 會期가 漸次迫頭하야 옴으로 郡과 各協贊會에서는 準備에 沒頭하야 方今設備에 着手中이며 主眼點은 大概農産品으로 出品點數도 大多數에 達하야 未曾有의 盛況을 呈하리라 豫期하는바 品評會順序와 場所及觀覽日程은 如左하다더라(龍仁)

陳列場所 自六日 至七日 二日間
▲器興公普校 自八日 至九日 二日間
▲白岩公普校 自九日 至十日 二日間
▲陽智公普校 自十二日 至十三日 二日間
▲金良場公普 自十四日 至十五日 二日間

男女合同討論
半島學院主催

京城半島學院에서는 過冬經費를 엇기 爲하야 來六日午後七時半부터 仁川外里愛館에서 中外,朝鮮,東亞日報仁川支局後援下에 男女合同의 討論會를 開催한다는데 共討論에 出演할 辯士의 氏名과 討論問題는 左記와 如하며 男性女性이 合同하야 討論하는것도 仁川에 잇서서는 처음잇는 일일뿐아니라 共討論問題가 男性으로서도 그 理由가 잇슬것이오 女性으로서도 그만한 理由가 잇는 問題이며 또 家庭調和에 對하야 相當한 興味잇는 問題이라 一般의 觀覽을 바란다더라 [illegible]

馬山公會堂
建築委員會

馬山府人會에서는 公會堂을 建築하기로 決議되어 建築期成委員을 選定一任하야 公會堂建築에 對한 方針을 講究實現케 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去一日下午八時에 東亞日報馬山支局에서 公會堂建築期成委員會를 開하고 委員長李瀅宰氏司會下에 共有財産處理의 件과 每月一回式定期로 委員會를 開催하고 進行方針을 討議할것과 其他事項을 討議決定하엿다더라(馬山)

平壤府內 戶口調査
各戶特別注意

十一月十六日부터 同二十五日까지 十日間 府內의 戶口調査를 一齊히 精確히 할터인데 萬若住家의 所有者나 家屋所有者는 府內의 町里名及番地를 明記한 標札을 揭出하지 아니하면 相當한 處罰을 할터이므로 一般은 미리 準備하야 조켓다더라(平壤)

露國紀念討議禁止

馬山勞動聯盟에서는 去二日下午九時부터 當地石町俱樂部에서 臨時大會를 開催하고 朴瀅氏의 司會下에 執行委員會에서 提出한 豫算案을 通過하고 討議事項中 十一月七日 即露西亞革命紀念日 紀念式擧行에 對하야는 臨席警官으로부터 討議禁止를 當하엿스나 不得已決議를 못하고 其他諸般事項을 決議하고 同十時半에 閉會하엿다더라(馬山)

文藝講演盛況
崇實專門

崇實專門學校 硏文會主催 本社平壤支局後援의 文藝講演 詩 音樂會는 旣報한바와 가치 二日午後七時부터 崇專大講堂에서 開催되엿는데 定刻前부터 모혀든 聽衆은 大滿員을 일우어 會는 大盛況裏에 圓滿히 閉會하엿다더라(平壤)

黃光陸棉販賣

黃光郡農會에서는 同郡陸地棉共同販賣를 本月一日부터 開始함으로 去十月三十日에 第一回入札을 行하야 左記와 如히 落札되엿는데 前年第一回價格에 比하면 實棉一等百斤에 八圓七十三錢이 高價하다더라(黃光)

實棉一等百斤價格
雲光 一九,〇五 法聖 一九,四〇
月山 一八,八五 論峯 一九,五〇
川馬 一九,〇五 龍嶺 一八,八五

巡廻探訪 ―(四百七十五)―
人蔘으로有名한 高麗의舊都
山明水麗한別天地
開城 一記者 (9)

宗敎界

一般으로 宗敎에 對한 觀念이 濃厚하지는 못하나 高麗朝時代에 한참 旺盛하야 祖先의 頭腦에 뿌리깁히 박엿든 佛敎思想은 오날의 그後裔에게까지 傳來되여 不少한가운데 다시 儒敎思想이 輸入되엿슴으로 엇던宗敎의 敎徒以外에는 大槪가 佛敎와 儒敎의 두 宗敎思想에 支配되여 特別히 奉信하는 極少數의 敎徒가 잇스며 最近 千九百年에 天主敎가 宣敎하기에 着手하엿스나 아즉 그 勢力은 委靡不振하는 狀態에 잇고 基督敎의 南監理敎會가 千九百三年 即只今으로부터 二十四年前에 宣敎事業을 始作한 以來 開城을 宣敎中心地로 하야 만흔 活動이 잇섯슴으로 現在에 잇서서는 相當한 信徒를 가지고 잇스며 救世軍은 一九〇九年에 輸入되엿스나 亦是微弱한 狀態에 잇고 近日各地에 한참 蜂起하는 正體몰을수업는 宗敎라고 하는것들은 아즉 開城에 드러와 보일이 업고 朝鮮各地에 相當한 勢力을 가지고 잇는 天道敎도 信徒數人이 잇슬뿐으로 아즉 그 存在를 認識치 못할만한 現狀에 잇슴으로 天主敎와 南監理敎의 紹介에 그칠가한다

◇天主敎 只今으로부터 二十七年前 即西紀一千九百年에 神父「으르불네」란사람이 市內東本町泉의 現敎堂에서 布敎하기에 着手하야 以來只今까지 二十七個年동안에 二三人의 神父도 박귀엿스나 別로 큰 活動도 업섯슴으로 相當한 布敎成績이 잇다고하기 困難한데 現在에는 朝鮮人 徐內神父가 在職하여 잇는데 女子一百二十餘名과 男子五十餘名 合一百七十餘名에 不過하는 信徒가 잇다하며 그 敎堂의 附屬事業으로 大正十五年九月부터 普通學校에 通學하지 못하는 兒童을 爲하야 講習所를 始作하엿는데 現在에 六十餘名의 兒童을 收容하여 잇다고하며 開城郡內에는 北面 勳峴과 南面 [illegible]에 敎會堂이 잇는데 勳峴敎會의 信徒는 約百名假量되며 [illegible]敎會의 信者는 六十名이 된다고 한다

◇南監理敎會 一千九百三年에 米國人宣敎師李德(假名)博士가 米國南監理敎會로부터 派遣을 바다 渡來하야 朝鮮內의 宣敎區域은 北監理敎會와 分定하고 開城을 中心으로 하야 二十四個年間에 屢萬의 巨金을 投하야가며 各方面으로 宣敎事業에 奮鬪한 結果 開城郡內에 現信徒數가 三千餘名에 達하는데 同敎會에서는 社會事業으로 松都高等普通學校와 第一第二松都普通學校의 두 普通學校와 南星病院이 잇스며 同敎會內의 女宣敎部事業으로 好壽敦女子高等普通學校와 美理欽女學校와 高麗女子館의 四幼稚園과 東,南,北,中의 敎育方面과 衛生事業에까지 經營하고 잇다 市內에는 北部,中央,南部,東門內,寒泉洞等五個所의 禮拜堂이 잇서 二千餘名의 信徒를 包容하고 잇스며 北部와 中央,南部의 三禮拜堂은 어느것이나 花崗岩으로 築造한 相當한 建物이 되여 市街의 偉觀을 더욱 도음는데 市內各禮拜堂의 信徒數와 郡內의 禮拜堂分布狀況은 左記와 如하다는바 市內各禮拜堂에는 엡웟靑年會가 各各 잇스나 現今의 狀態로는 別로히 하는 事業도 업시 睡眠狀態에 잇다하며 幼年主日學校는 郡內에 二十七校가 잇서 一千三百餘名의 兒童을 敎育하고 잇다고한다

市內各禮拜堂信徒數調査表

北部禮拜堂	六九二名
中央禮拜堂	一九三
南部禮拜堂	五五〇
東門內禮拜堂	一二一
寒泉洞禮拜堂	一一八

開城郡內禮拜堂分布狀況表

(光德面)	中蓮里 長秋洞
(南面)	海浪洞 栗峴里
(西面)	後西江里,碧瀾渡,孔子洞
(北面)	乙山洞,勳峴,龍岫 加土居
(嶺南面)	塔岬
(上道面)	仙美,蜂谷,蓮洞
(中面)	滄洞
(臨江面)	照江
(興敎面)	望浦
(大聖面)	山陽,三溪里,玉山
(東面)	鉢松里 白田里
(中西面)	牛目洞,坪村,鳩嶺
(靑郊面)	井洞
(嶺南面)	大廟洞

◇救世軍 一九〇九年에 英國人「外!은」이란사람이 救世軍營을 創設하고 宣傳에 努力하엿스나 만흔 信徒를 엇지못하고 數十人에 不過하는 信者로 더부러 最近까지 維持하여 오다가 年前에 救世軍에 全體的으로 紛糾가 일어난 以後는 더욱 그 信徒가 減少되야 十餘名에 不過한 사람으로 그날그날의 日曜禮拜를 보아온다고한다

社會團體

오날의 이 環境에 處한 우리의 運命이라고 하는것이 全朝鮮을 通하야 어느곳이나 다름것이 업슬것이다 開城의 社會團體라야 또한 그가운데 一分子이니 亦是 別다른 方道가 업시 한가지 運命에 處하여 잇슬것이 明然한 事實일것이다 過去의 歷史는 全朝鮮을 通하야 다―갓치 되푸리하는 수수꺽기이지만은 開城社會團體도 大運動當時에 雨後의 竹筍과 갓치 處處에 蜂起하엿다가 겨울날의 모진바람과 악착한 서리발 갓흔 環境의 支配에 依하야 가지가지(形形色色)壓迫과 苦痛을 견듸어가며 殘命을 維持하기에 [illegible] 그 구한 運命에 빠진것도 잇스며 그나마지 쟁해나갈힘이 업는것은 어린적 그대로 장사드린 不幸한일도 적지 안이 엇다

農村苦話 (十五)
論爭―格鬪―巡査出動
開闢以來의 大動亂
平和의 洞里도 區長外닭에 風波
―野人―

[illegible]

朴寡婦 가淫行을한
[illegible]

고올의 農民同盟을
[illegible]

崔區長 의非行調査
[illegible]

그들은 一齊히區長
[illegible]

살골에 痛快를늣기
[illegible]

一年의 宣告를바덧
[illegible]

天道敎布德紀念

高原 天道敎靑年黨高原部主催로 一、科學과宗敎 金一大 一、大道行 金瓊永 [illegible]

安州 十一月一日天道敎布德紀念에 安州에서도 未明에 靑年黨員四十名과 學生會員六十名總出動으로 宗家戶戶에 宣傳文을 配布하고 [illegible]

博川 지난一日은 天道敎布德紀念日이 임으로 博川天道敎內에 모여 [illegible]

泰川 天道敎靑年黨泰川支部에서는 [illegible]

義州 去一日에 天道敎靑年 [illegible]

新義州 去一日午後八時에 [illegible]

平壤 天道敎平壤部에서는 [illegible]

鰯魚多産
咸北夢祥津에
[illegible]

運動競技
餘興으로 脚戲
[illegible]

龍岩新幹發起會
[illegible]

自轉車競技會
[illegible]

安岳記者團 定期會開催
[illegible]

濠信校陸上運動
[illegible]

◇寫眞說明◇
[illegible]

湖南地方
[illegible]

關西地方
[illegible]

地方短評
[illegible]

地方人事消息
[illegible]

協贊會의紛糾
[illegible]

黃海記者大會
時日 十一月十二,三兩日間
場所 信川邑內
參加金 一圓式持參
申請所 信川中外東亞支局

大邱中等學校庭球爭霸戰
◇日時 十一月六日午前九時부터
◇場所 三笠町公設코―트에서
◇參加 大邱公私立中等學校
◇後援 大邱運動協會
主催 東亞日報大邱支局

ClibPDF - www.fastio.com

全朝鮮水利組合實況踏查記

江原道

水田開墾以來 三年만에三倍收益

施設前後의比較는若此

中央水利組合

◇第二隊 第二班 鞠琦烈

此一帶가高原地帶라는것은別記와갓거니와地勢는海拔百四十米突로乃至三百米突이나되는東北에서西南으로大波狀을보히면서低濕地가적고丘陵이大部分이라는것으로土質은大概砂壤土인데表土가깁고다만腹植質이少乏함이요夏期溫度는不均衡하야…

年別	町	町	町	計	石	反當平均
大正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豫想						
同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稻植付面積及收穫高 年別 實際 新開畓 在來畓 計 籾實收高 反當平均

盛行하는 土地兼併

日人所有漸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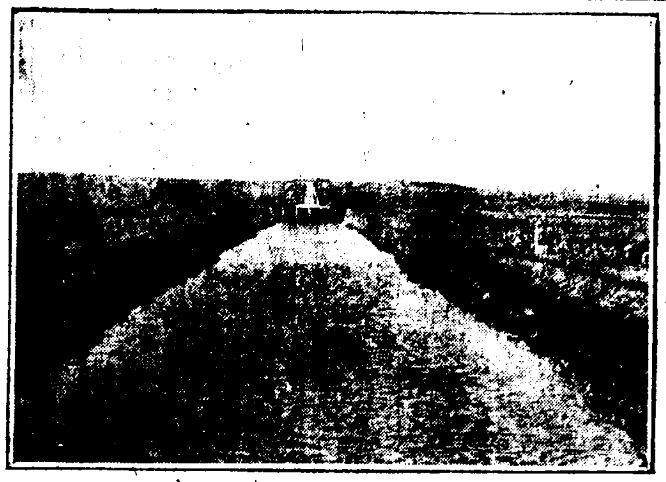
廣漠한大部分의原野를大地主가着手한만큼土地의集約이盛하야그所有反別을昨年末十一月現在에依하면不二農場의七百二十七萬四千一百六十六坪을筆頭로하야日本人地主四十八人에三千五百四十三町步國營에面의四個에十一萬七千九百八十七坪朝鮮人으로서五町步以上所有地主가二百二十八人排下될國有가一個所에八十二萬三千二百十六坪이라는바이를다시大正十三年十月現在로충詳示하면

大正十三年十月一日現在表

區分	人員	面積
國	一	[illegible]
面	六	[illegible]
鄕校	二	[illegible]
會社(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寺刹(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이니그土地兼併의度가얼마나極한것을알수잇고거의三分之一이日本사람의것임을볼수잇스며地價로보아水組創設前田이反六圓으로二十圓畓이最上이라야一百五十圓內外이든것이現在는新畓一等의六十圓畓二百五十圓이라는驚貴와組合收關係로自作農의小農이土地를維持할道理가업스니더욱兼併이繼行할것을豫斷할수잇고또한財力이貧弱한朝鮮人보담日本人의所有가增大하야갈것을容易히看破할수잇는것이다

（未完）



◇寫眞은中央水組의水路一部

組合費는五等級 初年度에는水稅不徵

組合費는五等級에分하야田林野等의新開畓地는總히一等地로하고在來畓을五等에까지區分하야反當平均을八圓二十一錢으로하되

一等 九圓
二等 七、二〇（一等의八、〇）
三等 五、九八（同六、二）
四等 四、五〇（同五、）
五等 三、六〇（同四、〇）

을最高限度로하고灌漑의初年度는徵收치아느며次年度부터하되一等地三圓九十五錢第三年五圓七十錢第四年七圓五十錢第五年부터九圓인金額으로하야各等은此比例에準한다는바組合費賦課率은別表收支對照의收入에示한것과如하다고한다

◇組合施設內容一覽表

堰堤名	甘屯堤	蓬萊堤	洪浦堤	馬山堤
所在地	平康郡縣內面	平康郡平康面 鐵原郡北面	鐵原郡北面	鐵原郡鐵原面 畝長面
集水面積 自己流域	四、〇〇〇町	八、二〇〇町		
集水面積 導水路流域	九六〇町	七、〇〇〇町		
灌漑面積	七二町	五六四町	二九〇町	四、六七〇町
貯水量	二億一千三百五十萬立方尺	十四億四千七十三萬立方尺	二千七百四十四萬立方尺（蓬萊堤補水六千二百四十七萬立方尺）	九千五百五萬立方尺（蓬萊堤補水二億四千六百萬立方尺）
灌漑面積	一、〇〇〇町	五、九二六町	二八町	七八町
堤의構造	土堰堤	土堰堤	土堰堤	土堰堤
堤體積	四八〇尺	五九二尺	一四八尺	一、九二四町
敷幅	二四尺	二四尺	二四尺	二一〇尺
天端幅	一三五間	二六四間	二八六間	一八尺
長	二割五分筋芝張	二割五分筋芝張	二割芝張	五〇五間
外法	三割石張	三割石張	二割五分石張	二割五分筋芝張
內法	內外法共幅六尺段	內外法共幅九尺段		三割石張
犬走				內外法共幅九尺段
高	七七尺	六六尺	二七尺	四九尺
洪水面高	七二尺	六二尺	二五尺	四六尺
滿水面高	六七尺	五六尺	二四尺	四二尺
溢流口幅	一〇〇尺	二四九尺	四二尺	一五七號
溢流道	混凝土溢流堰	混凝土溢流堰上에高二尺의角落을設하야雨期에는除去	混凝土溢流堰上에高二尺의角落을設하야雨期에는除去	混凝土溢流堰上에高二尺의自動扉를設
貯水池用地	五五一、八一〇〇	八四一六〇、〇〇七六	七二二九〇〇六	二二七一四七
工事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導水路	八間	一二間	一間	一間
幹線	四、七八	一、九二二		一〇、八八
支線	三、四〇五	一二、二九六	蓬萊堤에含함	一〇、五〇
支渠	八、九五五	六、〇七一		
水路	二五、七二九	一八八、三〇六	同右	四五、二二六

◇事業費收入의一般

年度	組合費	國庫補助金	起債收入	計
大正十一年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二年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三年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元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昭和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三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昭和四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昭和五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昭和六年	[illegible]	—	—	[illegible]
昭和七年	[illegible]	—	—	[illegible]
昭和八年	[illegible]	—	—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	—	[illegible]
自昭和十年至二十五年	[illegible]	—	—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經費豫想表

年度	經常費	事業費	利子及年賦金	計	差引剩餘金
大正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大正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大正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大正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昭和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昭和二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三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四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五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六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七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自昭和十年至二十五年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訂正 昨紙第六面下段水利組合記事第一項第一行의「瀋陽郡」은「金海郡」이기玆에訂正합니다

金川에火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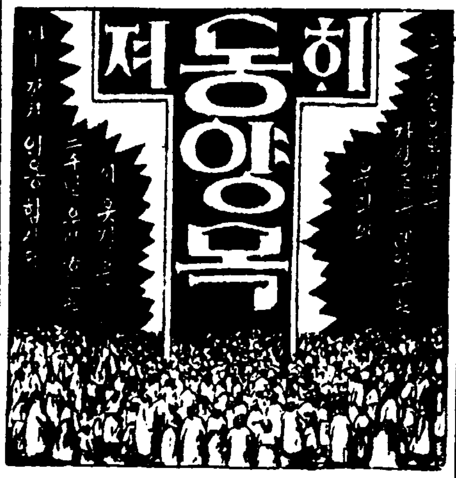
황해도금천군금천면금릉리（黃海道金川郡金川面金陵里）박춘식（方春植）집에서는 지난십일월삼일오전열두시경에 돌연히 화재가나서반소를당 하엿는데 원인은방금조사중이며아마 어린아이들의실화인듯하다더라（금천）

◆天氣豫報◆
晴一時曇
昨日正午 [illegible]
昨日最低 [illegible]
再昨日正午 [illegible]
昨年昨日正午 [illegible]

부인령약
태양조경환
경도가고르지못하거나혈적=랭중=대하증=자궁병등、병중잇는부인은 곳잡수십시오!
허헌부인도잡수시고、약헌부인도잡수시오! 허다한조타는약중에 태양조경환이제일신긔하게효험을내힙니다!
태양조경환을잡수시면 아모리오래고생하시든중허병이라도나흐시고、혈색이나며 몸이실해지며、못낫든아기도나흐시게됩니다。결단코지금부터곳잡수시게합시오!
本舖 합자회사 和平堂藥房 京城 電話光一九〇五番

全南光州郡光州面須奇屋町三五〇
產婦人、小兒、內、外科
玄德信醫院 入院隨意
女醫師 玄德信
電話四五五

희동양목



今般左記處所에事務所를移轉하고懇切히法律事務를取扱합니다
事務所移轉通告
仁川仲町二丁目山本吳服店西隣
辯護士 織笠貞輔
電話三七三番

植民 十一月號
アルゼンチンとブラジル號
アルゼンチンのすゝめ
移住者の心得と智識……石黑醫學博士
◆ブラジル移住者の成功法……永田稠
◆大アマゾン流域開拓計畫……
◆ブラジル本邦人の發展……
◆ブラジル移民の將來……
◆新日本に對する疑問……
◆移住組合に對する……
新日本言葉……高山謹一
日本植民通信社

全國特定販賣店各位
全國特定代理店各位
クラブ化粧品 セール專賣品
特定小賣正價表
구라부化粧品常설루専商品（常設クラブ化粧品）은代表的國産優良化粧品의普及을增進하기爲하야…

種別	個數	價格	種別	個數	價格
クラブ紙白粉大型	一個	四十五錢	クラブ水歯磨ガラス形	一個	八十五錢
クラブ煉白粉一號（小）	〃	五十錢	クラブ煉白粉一號	〃	八十五錢
クラブ乳液中瓶	〃	五十錢	クラブ香油平瓶	〃	九十錢
クラブ粉歯磨一號	〃	五十錢	クラブ乳液平角瓶	〃	九十錢
クラブ粉白粉九内三號	〃	五十五錢	クラブ固煉新形	〃	九十五錢
クラブ粉白粉一號	〃	五十五錢	クラブブリ、アンチン	〃	九十五錢
クラブ粉白粉二號	〃	五十五錢	クラブ洗粉二號	〃	九十五錢
クラブタルカン一號	〃	六十五錢	クラブ香油丸瓶	〃	一圓
クラブタルカン二號	〃	六十五錢	クラブ美髮用ポマード丸瓶	〃	一圓
クラブ美髮用ポマード一號	〃	六十五錢	クラブゼリー棒入瓶	〃	一圓
クラブ水白粉一號	〃	七十錢	クラブ美髮用ポマード二號	〃	一圓二十錢
クラブ固煉赤函	〃	七十錢	クラブキニーネ平瓶	〃	一圓三十錢
クラブ化粧水一號	〃	七十錢	クラブ固煉セルロイド容器	〃	一圓三十錢
クラブ化粧水二號	〃	七十五錢	クラブ白粉紙(ペン付)金屬容器	〃	一圓五十錢
クラブ美身クリーム一號	〃	七十五錢	クラブキニーネポンド丸入	〃	二圓五十錢
クラブ固煉一號	〃	八十錢	クラブ粉白粉セルロイド容器	〃	二圓五十錢
クラブつぼみ一號	〃	八十五錢	クラブ粉白粉銀金容器	〃	三圓五十錢
クラブ美髮用ポマード平角瓶	〃	八十五錢	クラブオードコロン二號	〃	三圓五十錢

구라부化粧品本舖

◎파스트바이날을計劃한 …
명씨 — 후 12
學生五人男 … 폭쓰 — 유스 1
市內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十一月五日부터特別封切
잘잇거라 8
못난大膽者 6
電話와秘密 4
잠간기다려라 2
團成社 電光一九五九番

十一月二日(水)부터
불싸진황소 10
피리부는마몬 9
女人禁制 7
本社京販 朝鮮劇場 電話光化門一二八一番
電光七三〇

第二回豫想 米收穫增加
◇一千七百萬石

總督府殖産局에서 發表한 十一月一日現在第二回米收穫豫想高를 보면 秋分後의 天候는 十月初傘朝鮮에 稍強의 暴風이 잇고 同中旬氣溫이 急降하야 結霜한 地方外는 大槪順調로 經過하엿스며 慶尙北道及江原道는 第一回收穫豫想高보다 多少減收하엿스나 그 外는 相當히 增收될 모양이 다 卽 그 總收穫豫想高는 水稻 一千六百九十二萬八千二百三十五石 陸稻 二十三萬九千七百六十石 合計 一千七百十六萬七千九十五萬石으로 秋分日(九月二十四日)現在 第一回收穫豫想高에 比하야 十六萬八千三百六石(一分)의 增이며 前年實收高보다 百八十七萬七千二百八十八石(一割二分二厘)의 增收이 엿다더라

◇米收穫高

大正十一年	一五、〇一四、三五一
同 十二年	一五、一七四、六四五
同 十三年	一三、二一九、三二二
同 十四年	一四、七七三、一〇二
昭和元年	一五、三〇〇、七〇七
同 二年	
第一回豫想	一六、九九八、六九九
第二回豫想	一七、一六七、〇九五
一回豫想高와의 比較	

米價大暴落? 二十一圓까지 갈듯
農務課當局者談

第二回豫想은 第一回보다 적어도 增收는 되리라 하엿든것이 各道報告의 結果에 依하면 十七萬石假量增收이라 한은 實로 意外이다 이 模樣으로는 十二月의 實收高도 減치 안코 前年보다 百五十萬石의 增加로 結局 七百七十八萬石假量이 될 것이나 朝鮮米價上도 어려운 形勢이며 困難한 것은 米價問題이나 朝鮮米價上도 어려고 疲弊한 農村의 窮狀도 何等 效果가 업시 米價는 一日一日 漸落하며 本年의 大阪價는 正租五錢 正米廿一二圓程度 外지 갈듯한바 그 結果 移輸出은 增加되리라 한다

今期의 銀行配當
前期와 갓치 減配 殖銀은 復舊될듯

今期의 銀行配當을 엇더케 할가 하는 問題에 對하야는 아즉 各銀行이 共히 確定치 안코 잇는 模樣이나 殖産銀行은 前期總會에서도 株主側으로부터 復舊配當의 希望이 잇섯슴으로 今期는 從前과 갓치 九分配當의 復舊에 努力하리라고 觀測되며 其他 各地銀行은 殖産銀行과 는 多少 減配의 由來도 一切가 希望하는 바이다 今期는 九分配當을 맛볼 듯하다

辭意는 事實 總督挽留로 不得已留任
有賀殖銀頭取談

安東取引所의 營業成績良好 今期는 七分이나

六月부터 十月末에 至하는 五個月間의 安東取引所의 錢鈔賣買手數料는 五萬一千二百餘圓인데 十一月의 錢鈔並證券賣買手數料를 一萬圓內外로 보면 今期는 七分配當이 可能하리라더라

金融 機關은 僻地의 金融을 圓滑히

貸金이 不動하고 直接僻地方面에 流入하는 傾向이 잇스나 今後는 僻地의 金融은 現狀의 打開는 困難하다 一萬圓에 保險料만 一圓八十錢이 必要하고 또 運賃日步 二錢을 加算하면 利用하기 어려우며 金利가 低下에 잇슴으로 今後는 僻地에 金融을 擴張하리라더라

運賃問題에 調停着手
渡邊吉田兩氏

鮮航會와 殺物聯合會間의 船賃引上問題에 對하야는 全朝鮮商業會議所聯合會에서 此 調停의 決意가 잇섯스나 于今까지 傍觀的 態度를 取하더니 渡邊商議聯合會長은 三日 非公式으로 鮮航會側(朝郵)과 物聯合會側 幹部가 會見하야 內意를 打診한 後 調停이 可能性 有否의 基礎調査에 着手하엿는데 此의 結果 全朝鮮的 重大問題로 商議聯合會에 外로 豫想하며 今期의 收支合計가 六萬二千餘圓假量으로 前期의 四萬七千五百餘圓에 比하야 一萬五千七百餘圓增收되여 七分假量의 配當이 可能하리라고 推測하더라

米와 粟 輸移出入高

總督府稅務課關稅係에서 調査한 十月下旬中의 米及粟輸移出入高는 아래와 갓다(單位石)

	本年十月下旬	前年同期
米輸出	八七	二五
米移出	一八三、八八六	一三二、七四四
合計	一八三、八八三	一三二、七六九
米輸入	一、二五四	一七九、四六
米移入	四二五	一、七五一
合計	五七、七六	一三、二〇九
粟輸入	一八二、九七九	一三九、七〇五
粟移入	—	三
合計	一八二、九七九	一三九、七〇八

滿粟關稅增稅 全然誤傳이다

滿洲粟의 現行輸入關稅는 百斤에 二十五錢인데 다시 百斤에 二五錢의 增稅說이 傳함으로 此에 對하야 總督府當局의 意嚮을 드르면 當局에는 增稅의 計劃이 全然업고 或은 人口食糧問題調査會에서 個人으로 말한 것이 誤傳된 듯하다더라

鮮銀整理 進捗과 好成績
片山鮮銀理事談

休業銀行의 整理로 매우 進捗하는 모양이나 中小의 商工業者는 銀行休業으로 因한 打擊은 勿論 休業치 아니한 二三流銀行의 資金缺乏으로 因한 金融戰선의 收로 慘狀을 呈한바 此等商工業者는 三菲第一과 가튼 一流銀行이 相當히 支持하고 잇스나 休業銀行의 整理가 一段落을 告하야 資金偏在가 漸次 恢復로 恢復치 아니하면 當分 活路을 차즐 수 업는 狀態이며 鮮銀의 整理도 매우 進捗 中이나 病人이 常態로 恢復됨에는 아즉도 時日이 걸닐 것이다 그러나 鮮銀은 目下 資金이 豊富함으로 正常한 擔保만 잇스면 一千萬圓 假은 그 以上이라도 곳 融資할 수 잇고 今後 朝鮮 米及 滿洲産物의 出廻期임으로 그 方面에 充當케 될 것이라고

今年中에 結果를 내여
金融調査는 草間局長도 努力할터

總督府의 金融制度改善調査委員會는 旣報한바와 갓치 普通銀行 對 金融組合의 營業分野 乃至 金利問題 民間銀行側 委員과 總督側 委員間에 意見이 衝突하야 兩方이 互相讓步치 아니함으로 散會하는 同時에 總督府는 今年中에 何等 決着을 보지 아니하면 外部關係가 잇다는 意味로 松本理財課長은 道般의 議事을 機會로 日本의 金融制度改善調査 資料를 蒐集 研究中이라는 바 草間財務局長도 今月中旬에 歸京하야 此問題를 解決하리라더라

僻地貸出 全體으로 利下
◇殖銀伊森氏談

僻地의 預金利下로 因하야 貸出日步도 低下하는 傾向이 잇스나 銀行側의 預金利率을 引下함으로 僻地의 貸出金利를 引下하야 預金利下를 考慮하야 預金利下로 因하야 貸出金利도 引下하는 바인 朝鮮內에는 主要海港의 金利가 最低이며 此에 追隨케 하야 僻地의 金利도 低下될 수 잇는 대로 此에 追隨케 하야 僻地와 海港의 金利가 五厘乃至 七厘의 差일으로 僻地는 比較的 高利로 되는 대라

諒解
하야 具體案을 作成하고 末久開催할 人口食糧問題로 提出한 後 그 實現을 期하리라

旬末鐵道在貨

十月下旬末의 京城北部中部線을 除한 鮮鐵沿線在貨는 南行七千百二十二噸 北行三千七百二十二噸 計 一萬八百四十五噸으로 前年同旬末에 比하야 一千六百五噸 旬末보다 一千三百三噸의 減少이며 前年同旬末에 比하야 增加品種은 十六 減少品種은 十三인바 米麥木材 石炭 肥料等 大量貨物은 모다 減少하엿슴으로 全體的 不振이요 新穀은 湖南 京義線 湖南 鎭南浦 及京元線方面에서 出廻이 나 京釜線 京元線方面에는 아즉 늦다

開墾干拓事業 低資를 倍額增加
今年度內에 實現?

朝鮮의 開墾干拓事業促成에 關하야는 이미 產米增殖計劃의 基礎案에도 三十五萬町步의 土地改良事業中 十萬五千町步가 配定되엿스며 干拓 埋築等에 比하야 工事費의 過多와 長歲月 開資金이 固定하는 關係上 採算이 困難함으로 現在 三割의 國庫 補助 金三割五分의 低利資金과 三割五分의 自己資金으로 하면 自發的 着手가 困難한 狀態이며 一時資本家中에 開墾干拓事業會社設立의 計劃도 잇섯스나 一般財界不況의 今日 到底 實現될 수 업슴으로 總督府와 土地改良會東拓等이 水曜會 乃至는 其他에서 協議中이더니 그 具體案을 成案하야 其他 當局과 折衝한 結果 當局에서도 考慮中이며 明年度에는 一個年間에 五千町步의 開墾干拓事業을 하는 것으로 一個年의 所要工費는 五千萬圓이며 그 中 一千五百萬圓은 旣定國庫補助로 하고 殘額 三千五百萬圓은 全部 低資로 七萬五千町步中의 五萬町步를 水利組合으로써 完成하야 熟田으로 된 後는 每年 一千五百戶의 日本移民과 朝鮮移民은 年賦償還으로 自作農이 된다 더라

補助
金三割五分의 低利資金三割五分의 自己資金으로

鮮銀券 限外發行
增額至難說

朝鮮內資金需要期에 入하야 鮮銀券은 三千萬圓에서 四千萬圓의 限外出現을 豫想하나 日本市場이 金利低로 『콜』普通一錢一厘假量일 올보면 一錢六厘에 該當한 限外는 出現치 아니할 뿐 하고 日本의 市場金利가 多少 强味가 잇스나 銀行은 모다 警戒 久氣가 濃厚하야 年末은 所在高의 準備가 만흔 傾向임으로 『콜』等이 急騰치 아니할 줄로 생각하며 日銀의 發行稅引下에 繼續하야 鮮銀의 發行稅도 五分으로 引下되기를 期待함으로 此가 實現하면 資金의 需要增減에 가장 敏速히 順應되는 限外가 結局 增加하리라더라

新發見한 深川無煙炭鑛 炭質은 東洋稀有

朝鮮의 無煙炭鑛은 現在 海軍平壤鑛業部의 炭鑛이 本道府外寺洞에 大成炭鑛會社의 江西, 大成, 外無煙炭鑛 平南大寶面, 三菱大寶炭鑛會社의 平原, 南揚柏里, 大同, 朝鮮無煙炭鑛會社의 少川 平壤 附近에 散在하는바 朝鮮總督府技師의 鑑定에 依한 中인데 最近에 許可를 밧어 將來試掘이 發見되야 深川里 無煙炭鑛은 京城延禧專門學校理科敎諭 村田氏가 試掘한 結果 埋藏量은 約 二億噸이며 또 最近에 炭質이 稀有한 優良 한 炭으로 同氏는 有望하다 더라

埃及棉 收穫豫想
八萬俵가 減少

埃及政府는 新棉의 收穫豫想을 아래와 가치 發表하엿다(單位 칸다)

사겔	二、四九九
其他	三、五五七
合計	六、〇五六

但 最終豫想은 十二月의 上半月中에 發表할 터이라 더라 (카이로電)

京仁釀造가 第一

京畿道市販醸造品審査會는 京仁附地에서 販賣하는 各種의 淸酒, 燒酎, 醬油等을 募集하야 嚴密히 審査하엿는데 그 優良品은 거의 모다 京仁濟으로 好成績이며 從來에 日本産品은 朝鮮産品보다 優良하다고 傳하엿스나 今年의 審査에는 外京仁濟의 醸造品은 名實同樣의 優良品이라고 說明하엿다더라

日本運送合同 不徹底說 非合店을 優待

一兩日前 日本으로부터 歸한 某運送業者는 日本의 運送合同後 狀況에 對하야 아래와 갓치 말하더라

日本은 突發的 原因이 運送合同을 促한 外팔도 잇스나 通運, 國際, 明治, 中外가 合同하고 其他를 後로 讓한 것이 感情問題가 되야 于今 外지 合同會社와 非合同運送店이 不調和이며 또 荷主側에 合同反對가 만하 非合同運送店이 此와 提携하야 大貨物과 普通小荷物量取扱함으로 運送合同이 理想대로 되지 안는 感이 잇고 新鐵道大臣이 最近에 가업드래도 假渡證으로 運送合同은 徹底치 못한 바 잇는 데 此에 對하야 朝鮮은 매우 考慮할 點이다

日本農政協會 總會를 開催

帝國農政協會總會는 一日午前十時부터 帝國農會에서 열고 出席者는 各府縣의 會長約五十名 矢作常務의 議長으로 豫算決算의 審議會務報告, 各地報告等이 잇슨 後 아래와 갓치 諸案을 可決하고 午前은 此로써 終了하엿다

◇決議

本會는 前年總會의 決議에 依하야 十大事項의 目的 達成에 努力하엿스나 充分한 結果를 得치 못함은 매우 遺憾이다 前年의 決議遂行을 繼續함은 勿論이라 하겟스나 時節의 推移, 農界의 現狀에 鑑하야 左記各項의 卽行에 그 主力을 傾注하고 그 實現을 期코자 함

(一)米價維持에 關한 件
(二)自作農의 維持創定에 關한 件

午後 一時에 再會

(一)明年의 衆議院選擧對策의 件
(二)農政研究에 關한 小委員會 設置에 關한 件

米國財界近況

米國의 財界近況에 對한 消息을 드르면 아래와 갓다

◇金融緩慢 = 『콜』마-네』(翌日拂)은 三『파』센트』月初配當金 支拂準備도 잇서 去月三十一日 四『파』센트』金融基調 緩慢 定期貸는 三個月物 四『파』센트』三乃至四『파』센트』四分의 一 銀行引受手形 九十日物 三『파』센트』四分一乃至 三『파』센트』八分의 三

◇商工業界 = 建築工業 鐵鋼市況은 前年의 活氣가 업고 製鐵作業率은 六十五『파』센트』에 止하야 時勢는 漸落商品價値 動도 亦是 不振하나 一般商業界는 相當한 推移를 示하는 傾向이 不少

◇財界氣運 = 財界는 大槪 氣運 株式은 波瀾이 만코 債券은 金利低로 現像을 支持하나 依然旺盛한 新起債의 壓迫이 잇서 取引이 閑散하고 週間起債一億 九千萬弗 六分 半利付, 米貨公債百一弗

◇棉花反撥 = 棉花는 十月十八日 外지의 綿上 八百十一萬八千俵로 豫想期보다 小額이 엿슴이로 反撥하엿스나 一兩繼續 順調로 政府收穫 豫想過少를 말하는 사람도 잇다

◇金流出 = 亞爾然丁에 五百四十萬弗, 加奈陀에 百萬弗

大規模貿易政策, 在野黨大會에 大藏, 農林, 政友會本部等 ...

市勢와 商況 (四日)
株式 漸退의 軟調

前場焦付
今前場도 阪地의 保合 의 弱勢로 前場은 大引 不氣氣이며 大林側의 賣物이 多少 斷然하엿스나 一、二十錢 可小動에 不過하고 依然 閑散裡에 大引되엿다

極端硬派의 主張 弱氣의 妙味減

貨方이 말하는 것과 가치 事業界의 商品界가 不振도 弱氣가 될 수 업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絶對한 金緩慢의 背景이 잇는 만큼 買方의 氣勢는 依然 潛在하나 弱氣의 妙味가 減退함으로 敢히 賣込치 못하는 所以이며 또 株界의 急變은 嫌忌이나 도 暴落 오래 保合을 거듭하여 생기는 것으로 萬一分岐가 下放이 된다 할지라도 그다

後場低落
始初 後場 하야 五圓 八十錢에서 二十五圓〇三錢에 止하고 後場 八十八錢에 止하엿다

京取短期前場步調

京取 一〇低	鐘紡 一〇低
東新 二〇低	

今後分岐는 興味

雙方一向對峙

金融背景을 믿고 사든 破派는 取組가 增加하고 年末決의 懸念으로 躊躇하던 取組를 警戒的 態度를 取하는 一面 軟派도 根本의 難行을 따라며 解決될 解決이 되야 硬方은 어느 便으로든지 分岐가 잇고 말것이다

後場稍落

賣方은 大林新田에 買方은 松山派의 兩店으로 稍軟勢를 示하엿스나 依然 閑散의 場面이엿다

十四年과 相似
年末이 날로 切迫하여도 時勢는 皮肉的으로 無活氣할줄 보면 十四年과 相似하다고

政界懸念氣分
果然 十四年 時勢갓다 할지라도 年末時勢의 期待는 薄弱

前場賣買

主要株取組高

期米 五圓의 臺割

前場頑强 休前二十五圓十六

三期 賣進 彼此取組時代

大阪弱 仁川强

米豆 ◇豊

正米 出廻增으로 軟化

仁川各店依合

京城正米時勢

三等	二九、八〇
四等	二九、一〇
今摺玄米	二三、七〇
合	
粟 八面城	一〇、三〇

仁川大豆時勢

龍山大豆	一石	一四、八〇
長湍大豆	一石	一四、四〇
金川大豆	一石	一四、三〇
海州大豆	一石	一三、四〇
天安大豆	一石	一三、五〇

株式 京取短期取引 / 京取短期賣買高 / 東京短期 / 東京現株前場 / 大阪長期取引 / 大阪短期取引

期米 代引算定日步 / 仁川前場 / 大阪前場 / 延取 / 東京前場 / 釜山 / 各地期米 / 大阪綿糸 / 仁川正米市勢 / 京城綿絲布市勢 / 大阪棉花 / 橫濱生絲 / 大阪砂糖 / 海外砂糖 / 對外爲替 / 海外經濟 / 滿洲各地商況 / 京城手形交換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日本金利

사랑과 죄
廉想涉 作 / 靑田 畵 【84】

방문 (一)

해주ㅅ집이 병원에서 나오다가 영마려아를 만낫다고 하면 그것은 소설가다운공상으로 밋을 공교하게도 삼이라고하는 그 짓말이라고 함프고십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짓말가튼 진정말이 하도 만흔것이다

사실 해주ㅅ집과 온수가 조희서 그래서는 지 병원문을 나서가지에 마려아와 뎍마조치는 다 창출의 에 두째진은 좀 쇠풍을 쇠풍차이 다 보며 지나치다 그러나 한울이 준괴히 를 노처서는 아니될일이 다 해주ㅅ집은 놀려다 보앗다 마려아도 울려가다가 홀려다 본다

『저번에 한번 뵈이지 안혓데요…』

해주ㅅ집은 친숙히 말을 부치며 울처온다

『비-더넘 만나보라 오섯든가요?』

마려아는 미천년이 돈이 나달라고 시달리면 귀치안라고 케를 한생각이 업지 안헛스나 놀려보고십흔 호기심도 잇섯다

『비-지금 만나보고 감니다 만은 별안간 줄도 롱해서 간신히 피여 노코 나오는 길이 임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아 씨께서는 그때갑고 어디케되섯요?』하고 예사로히 무럿다

『어디케 되긴 무에 되어 오당신 사위님 어찌면서 나 보다 떠 갈아실 게 아니야 요?』하며 마려아는 생글 웃엇다

『글세 사위인지 아닌지 두고봐 야 알지요』

『그랑만도 사위님 어서 시겟지만 장모인 놀정하시고 엄마나 깁브 시겟슴니까?』

『누가 알아요 그년이 아 내가 무 하고 냅생웃는다』

마려아는 별안간 어찌 인사를 할 아가 의 말을 받으며 부처서 가수상 하여서 어 마려아의 말눈치가 수상하여서 어

『류예수씨라는 서울에 도 유명 한데 만 장자가 정사 위 말 넘이 되 신다 는데요? 병우 조 호 사 나 겟지 속이 시는 구러-』하며 마려 아는 여 린히 생글거리며 놀린다

『그것모르지요 저 회 서 력 눈이 마 저 서 허 는 울 내 가 엇 더 케 아 나 요』

의사도 채 - 오기 전에 무 슨 죄 나 진 듯이 뒤 도 안 도 라 다 보 고 다 라 나 왓 건 만 허 소 레 부 른 말 만 은 때 우 려 청 이 되 는 보 양 이 다

『엇지다가 그 럿 서 요 ? 』 다 처 지 는 안 핫 나 요 ? 』

『아 모 러 지 머 넘 발 써 두 조 신 니 다 귀 축 에 감 어 아 니 면 빼 만 장 자 로 사 위 를 골 으 시 니 !』

해 주 ㅅ 집 은 또 한 번 놀 라 면 서 도 반 갑 기 는 하 얏 스 나 내 색 을 보 이 지 안 핫 다

『그런이 정 보 나 도 좀 가 보 아 야 하 겟 군 요 』

해 주 ㅅ 집 은 괴 숙 사 에 잇 는 나 병 원 안 에 잇 느 냐 고 뭇 는 다

秋夜의 江邊
白 振 浩

그립자하나
나하나

혼자서면 온다고
모래알은우수수
머리엘도우수수

귀뚤기우러면
울니는것을소리
가슴도바다련가
저귀서도들소리

달은밝은데
그림자하나
나하나

ClibPDF - www.fastio.com